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FEB 23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53 1982년 2월 19일(금) 20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ebruary 19 & 20, Friday & Saturday,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한인회관 이전 작업착수

$30만 모금운동

"목표액달성 무난할듯"

77년9월14일 전교민의 모금과 모국정부의 도움으로 구입한 토론토 한인들의회관이된 모빌·드라이브20번지(20 Mobile Dr.)의 회관건물은 5년이 채 못돼불편한점이 지적돼 확장이전을 겪게됐다.

지난1월 한인회총회에서 회관 이전에관한 전권을위임받은 토론토 한인회관관리위원회는 총회에서 이전키로 확정, 확장이전에 필요한 기금 30만달러를 범교민적 모금운동으로 마련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조한철 회관관리위원장은 이날 이미 결성된 모금운동준비위원회 간담회 를 시내 아리랑 식당에서 갖고 모금운동에대한 전 교민의 적극지지를 당부했다.

모금위원회(가칭)간담회에는 준비위원으로 박인순 한인회장, 이형인 전실협회장, 조영호 노년회장, 장순재 코리아타운 번영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범 교민적 모금위원회를 조직, 모금방법등 구체적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준비위측은 77년9월 20만달러였던 현회관을 약40만달러에 팔고 모금으로걷힐 30만달러와 합쳐 60~70만달러짜리 회관을 교민의회관 이용률이 보다높을것으로 예상되는 토론토다운타운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모빌·드라이브 20번지의 현회관은 사무실과 주차시설은 괜찮으나 강당이 200명도 수용할수 없을만큼 좁으며 지붕, 하수시설등이 나빠 매년 막대한보수비가 들어야 하며 교통이 불편하다고 관리위측은 설명했다.

에그린톤·이스트X 돈벨리·파 웨이 동쪽에있는 회관은 노인등 대중교통 시설 이용자에는 불편이 크며 한인들이 많이살거나자주 드나드는 지역에 있는것도 아니어서 방문자, 강당이용자(1회사용료$65)도 적었다.

현 회관에는 한인회외에 노년회, 실업인협회, 코리안·저널사가 세들어 있으나 실협은 오는4월15일께 불루어 한인상가지역으로 이전한다.

회관관리위측은 회관이전원칙이 결정된것은 지난 1월23일 한인회 정기총회와 작년10월 한인회 이사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았고 12월2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발표한 15명중 10 명이 찬성, 3명이 반대, 2명은 보류했다.

여론조사에서 67%가 찬성했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이 여론조사는 회관이전 찬반에관한 설문지를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해 일부교포들에게 발송하고 그회답을 집계한 형식을 취했으나 여론조사 방법상에문제점이 있었음이 일부교민들에의해 지적됐다. 지난 1월 총회에서 박인순 한인회장은 설문서"교포사회각단체장등 유명인사 에게는 다돌렸다"고 밝혀 작위추출 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번 간담회에서 준비위는 새회관 위치를 남북으로는 칼레지·스트릿과 데븐포트·로드, 동서로는 스파다이너·애비뉴와 오싱톤애비뉴로 둘러싸인 지역안이 되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제출돼 블루어 상가지역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토론토 교민사회는 71년부터 한인회관 건립계획을 세우고 모금운동을 폈으나 77년9월까지 7백명 으로부터 4만6천달러만 모았다. 이에 한국정부는 77년9월 가격전액이었던 20만달러를 회사 회관을 구입해주었다. 한인회관은 애초 한국정부명의로 등기됐으나 78년11월 박종상 총영사재임시 한인회 단독명의로명의이전 됐다.

모금준비위는 현 교포사회는 경제적 의식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30만 달러 모금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5년만에 이전을 결정한 한인회관 개관1주년식 광경=강당이 너무 좁아 뒷광장(주차장)으로 식장을 옮겨야 했다.

최동원 세계야구대회 출전

아마자격 유효, 토론토는 83 년에

최동원이 아마추어 자격 제한에의시비에서 벗어나 세계야구선수권 대회에 한국대표로 될 수 있게됐다.

13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야구연맹(AINBA) 집행위원회의에서 캐나다 프로야구 토론토·블루제이스와 입단계약으로 논란을빚었던 최의 아마추어자격을 논의, 프로선수로 인정치 않고 이번 대회에 출전할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로버트·스미드 AINBA 회장은 「최동원이 비록 프로팀과의 계약서에 서명은 했으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이 유효한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아마추어 자격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다만 최의 경우를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생길것에 대비, 프로구단과의 계약자체 만으로 아마자격을 상실하느냐, 아니면 돈을 받았을때만 프로로 인정하느냐를 오는 9월2일 AINBA총회에서 확실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캐스퍼·필라크(캐나다)제3부회장은 「캐나다 국내법으로는 계약을마치고 돈을 받았을경우에만 프로선수로 인정한다.

최는 돈을 받지않은것이 확실하므로 아마자격에 하자가 없다」고 말했고「블루제이스구단에서도 10일전 기자회견을 갖고 최가 스프링캠프에 참석치 않았으므로 입단시킬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야구연맹의 이와 같은 판정에 대해 블루제이스는 "우리는 아마추어연맹에 이런 문제를 제소한적 없다. 모든것은 아메리칸리그와 상의, 최가 계약내용대로 22일까지 프로리다에 도착안하면 그때가서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崔東原은 세계야구선수권대회를 마치고나서 터론토·블루제이스로 진출키 위해 새로운 교섭을 받고 있다.

한국에 최신 무기 공급

미, 북한우세 대응책

(워싱턴16일=연합)레이건 행정부는 수적으로 우세한 북한의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남한에 170기의 최신 호크유도 미사일과 723기의 로켓·모듈을판매할 계획이라고 16일 미국방성이 [illegible]다.

이같은 제안은 15일 미의회에 상정됐다. 한국은무기구입을위해 68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방성은 자세한 무기인도날자를 밝히지 않았다.

한국이 이번 무기를 구입하게되면 지금껏 전투기수에있어 북한에 대한 2:1의 열세를 극복하고, 전반적인 군사균형을 이룰수있을 것이라고 국방성은 말했다.

이번에 판매될 최신유도미사일은 남한의 전략 요새에 배치될 것이며, 로켓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연습훈련을위해 보충될 것이다.

남매 피아니스트

이후찬·이진경

이 후찬(8), 이진경(6)남매가 키와니스대회에서 나란히 입상, 친지들에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팍 데일국교 3년인 후찬군은 8세이하 피아노 2중주부문에 같은 학교 1년인 동생 진경양과 나란히 출전 2등했고, 진경양은 나이보다 한살위인 7세이하 피아노 독주부문에서 27명중서 2등했다.

74년 이민, 비지니스 를 하고 있는 이달현씨의 자녀들인 이들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리듬", "장래가 촉망되는 빠른 손가락놀림"이라는 평을 들었다.

이들은 숙대음대를 수석졸업한 어머니 안정혜씨로부터 레슨을 받은지 1년만에 영광을 얻었다.

◇이후찬군

◇이진경양

해밀톤 한인회

82년 주소록발간

해밀톤 한인회(회장 이영구)는 82년도 한인주소록을 발행했다.

68페이지에 달하는 주소록에는 약 80가구의 가족 350명의 이름이 한눈에알아볼 수 있게 실려있다.

주소록은 무료로 각가정에 배부되며 주소록을 배부받지 못했거나 누락·정정등의 사항이 있으면 전화 662-7924, 385-2851로 연락바란다고 해밀톤 한인회가 밝혔다.

한국이름 되찾기운동

재일교포, 기독교중심

(서울18일=연합)재일교포들에 한국 이름을 되찾아 주자는 운동이 기독교계에서 개시됐다.

일본에 본부를 둔 장로교파의 최창하목사는 16일 한국이름 되찾기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일간의 만명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최목사는 60만 재일한국인이 일본인들로 받는 편견과 차별대우는 여전하며, 한국이름을 쓸 경우 종종 사회적인 제약을 받는다고 서명운동의 이유를 말했다.

최목사는 77년7월 일본의 NHK방송이 자신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는데 항의, NHK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후쿠오카 고등법원의 항소심은 오는 24일 열린다.

오늘의 예금금리 (2월6일 현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기예금	30~59일	13.75%	12.5~13.5%
	60~89일	14%	12.75~13.75%
	90~179일	14.25%	13~14%
	180~1년	14.5%	14.25%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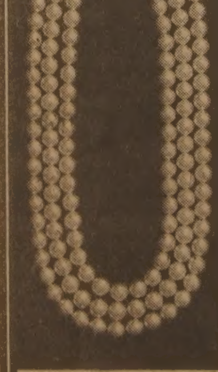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축
개업5주년



세계적인 명소 — EATON센타와 같이 태어난 「고려보석」
성실한 「써비스」, 신용과 권위를 폐사의 모토로 하고 있는 「고려보석」은 교민의 긍지를 함께 지니고 있읍니다.
카나다보석 협회 회원
고려보석
EATON CENTRE
(Level 1분수대 옆)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O 수리중 차 대여
O 완전한 차체수리
O 사고차량 Towing Service
O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622-1171
정 창 헌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지성인들의 신춘파티

새벽 2 시까지 춤과 대화로

지난 13일밤 블루어의토론토 대학 구내 툴사식당에서는 남·녀 학생을 비롯한 지성인 100여명이 모여 댄스·음악·좌담으로 새벽 2시까지 밤을 즐겼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교수에서부터 이제 겨우 10대의 대학1년생까지 모였던 지성인들의 대화였다.

신춘파티를 주최한 온타리오 한인대학생회(회장천명호)와 과학기술자협회온타리오지부(지부장 신복균) 한인 컴퓨터회(회장 이태영)는 이날 7시부터 파티장에 모여 선·후배간의진지한 대화와 함께 춤으로 밤을 지새웠다.

한인들만의 모임인 이날 파티에서 토론토대학의 천명호군이 "우리 학생들은 이 서양인위주 사회를 뚫고 나가는데 선배들의지혜·경험을 이용하자"는 말대로 학생들과 선배교수, 컴퓨터 프로그래머등 각종 직업인들은 눈앞에 닥친취직문제로부터 대학 생활의 문제점등을 진지하게 말했다.

토론토대학의 윤태순교수는 "여기가 강의실은 아니니 마음 푹 놓으라"면서 "모든 문제점들을 같이 애기해 보자"고 파티서두에서 말했다.

파티를 주최한 각단체장들의 간단한 인삿말에 이어 학생들과 선배들은 서로 어울려 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13일 열린 한인대학생을 위한 신춘파티는 100여명의 학생, 선배직업인들이 모여 춤과 대화로 밤을 지새웠다. 왼쪽에 수염을 기른 이는 보험수학자 주병돈씨. 한 학생의 재치에 박장대소하고 있다. 오른쪽끝이 이날 파티를 공동주최한 과학기협 회장 신복균씨. 학생들은 파티도중 스텝도 모르는 춤을 추었으나 선배들의 능란한스텝보다 훨씬 더 농도짙고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군통수권 일원화 위해

등소평, 군장성들 설득

(페킹) 등소평 중공 부주석이 오랜동안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는데 대해 새로운 비공식 소식통은 등소평은 등체제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주요군부 지도자들을 무마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 전국 곳곳의 군기지를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보도는 아직 공식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는 13일자 사설에서 등이 군의 총수임을 재확인하는 글을 다루었다. 그러나 이것이 등이 군장성들과의 마찰을 해결한 표시인지는 아직 두고 볼일이다.

보도금지로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지난주홍콩의 주간지 〈극동경제 평론〉은 등의 실용주의적 근대화 계획에 반대하는 당과 군부의 지도자들에 의해 수행된 「무혈구데타」에 등은 희생자가 됐다고 암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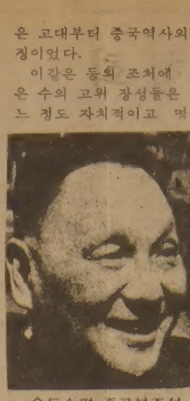
중공외무부대변인은 이같은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전적으로 부인하며, 등의 건강은 양호하며 그의 모든 공직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공당국은 이 잡지가 페킹의 호텔 신문대에 나도는 것을 금하지 않고 있다.

등의 군부와의 문제에대한 확인되지 않은 보도는 등은 중국 29개성의 통치를 중앙에서 좀 더 관리하기 쉽게 중앙통치를 강화한 지역사령부제도로 간소화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각성은 강력한 지방분권적 권한을 가진 지역군사령관이 다스려 왔으며 이런 양상은 고대부터 중국역사의특정이었다.

이같은 등의 조치에 많은 수의 고위 장성들은 어느 정도 자치적이고 명망있는 그들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에 주춤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대부분의 외국분석가들은 등의 권력은 이들 군부 지도자들의 향방에 달려있으며, 등의 체제에 불만을 품은 소수의 장성들은 등의 군부재구성에 반기를 들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이곳 외교관들 사이에는 등이 이번 일로 특 권고위 장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면 그가 추진하는 근대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며, 결과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없는 그의 직위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



◇등소평 중공부주석

강도3도, 3~5초 두번

서울지방 지진

(서울 15일=연합) 15일 새벽 한반도 중부 지방에 강도 3도의 지진이 엄습했다.

진원지는 서울에서 북서쪽 15km 떨어진 경기도 김포지방으로 0시31분과 53분 2차례에 걸쳐 발생했으며, 각각 3초, 5초간 계속됐다고 중앙관상대가 밝혔다.

메트로 서울의 빌딩들은 진동으로 약간 영향을 받았으나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진으로 놀란 수 많은 서울시민은 집밖으로 대피했으며, 중앙관상대에 전화를 걸어 지진이 아닌가 확인하는 사람들로 혼잡을 이루었다.

저지대에 사는 한 시민은 TV를 보고 있을때 지진을 느꼈다며, 창문과 가구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번 지진은 1905년 중앙관상대에 지진측정계가 설치된 후 서울지방에 엄습한 2번째 지진이다. 한국에서 발생한 지진중 가장 큰 것은 강도 5도로 1936년, 1978년에 각각 일어났다.

한국은 태평양지진 지대밖에 위치하므로 강력한지진은 겪지 않는다.

낙스빌 세계박람회 한국참여

5월부터 반년간, 박호택 무역관장 책임하에

시카고 무역관의 박호택관장은 오는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테네시주 낙스빌에서 열리는 세계 박람회의 준비를 위해 12일 현지로 떠났다.

박관장은 10일 자로 세계박람회 한국관의 관장으로 겸임 발령을 받았으며, 10일 시카고에 도착한 한국무역진흥공사의 정해수과장과 조돈영계장등과 합류하여 12일 상오, 낙스빌로 출발했다.

이번 낙스빌의 세계 박람회에는 전부 12개국이 참가하는데, 5월1일의 한국관 개관식에는 서석준 상공부장관이 직접 참석, 개관 테이프를 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관장은 현재 ″낙스빌 세계 박람회의 한국관은 공정이 35% 정도 진척되어 있다″고 밝히고 ″무역진흥공사측의 선발대와 합류하여 12일 낙스빌에 도착한 후, 5월말까지 현지에 머무르면서 개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키니의 영국 황태자비 다이아나. 오는 6월이면 출산하게 될 황태자비의 허리가 굵어졌다. 다이아나는16일 찰스황태자와 함께 플로리다 남쪽 바하마에 도착 휴양중이다

◆이런일 저런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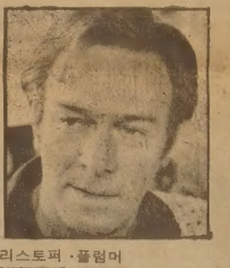
여권운동은 진화현상 후세대로 전승돼야

◇여성들이 앞으로 여권운동을 보다 강화하지 않는한 지금까지 획득한 일부 권리나마 고수하기가힘들게될 것이라는 것이 사계의 권위자들의 말.

정신분석학자인 린다·폴락박사와 심리학자 로버트·페이센씨는 남녀관계는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유지, 어느한쪽이 공격의줄을 조금 늦추어 주면 반드시 공격을 받아왔다고 설명하며, 어떤 남녀관계건마치 계급투쟁같이 한쪽이권력을 쥐고 다른한쪽이 이에 눌려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 두 전문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관계는 결코 진정된 동등관계를이룰수 없고 실제로 완전한 동등을 이루고있는 커플은 극히 드물다고 했다.

폴락박사는 또 진정한남녀동등은 여성들이 동등권 획득에의 혁명운동을 다음세대다 성인이 되기까지계속 밀고 나가 자연스런풍토를 만들지 않은 한 후퇴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여권운동은 혁명의 과정일뿐 아니라〈진화현상〉이라고분석.



◇쥴리앤드류스와 크리스토퍼 ·플럼머

◇16년전 제작돼 전세계 영화팬을 사로잡은 뮤지칼 영화〈사운드 오브 뮤직〉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영화의 주인공들 폰·트랩일가가 나찌의 감시를 빠져나와 오스트리아로 탈출한후 행방에 대해 궁금해할 것이다.

20세기 폭스사는 최근대부, 스타·워즈, 수퍼맨, 록키등의 제2편이 흥행에 성공한 예로보아〈사운드 오브 뮤직〉의 속편제작을 결심, 우선 3시간짜리 TV용필름을 제작키로 결정했는데 문제는 출연진 제1편 에서 주연한 쥴리·앤드류스와캐나다배우 크리스토퍼 플럼머가 제2편에도 등장할지가 아직 미지수이다.

폰·트랩가족은 그 이후 미국에 정착했고 쥴리 앤드류스가 분한 마리아· 폰 트랩은 아직 생존해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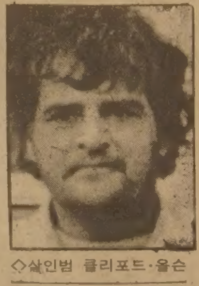
자서전도 출판 살인범 돈방석에

◇11명의 10대남녀를 무참한 방법으로 연쇄살해캐나다 전역을 떠들썩하게했고, 또한 연방경찰(RCMP)이 범인으로부터 시체가묻힌곳을 알아내는데 시체1구당 만불씩을 지불했다해서 더욱 문제가된 살인범 클리포드·올슨이 이번에는 자서전을 출판, 돈을벌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프리랜서 기자 데이빗·카일(30)씨는 15일 올슨의 부인 조앤·올슨과 합의, 앞으로 2년간 올슨과의 인터뷰 독점권및 그의 자서전 발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범인 올슨은 지난1월 11개 살인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주 이를 번복 항소하겠다 했다가 2일뒤 또다시 항소를 취소키로번복했다.

카일기자는 자서전 출판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전부 올슨가족으로 돌아갈것이라고 말했다. 올슨은 부인과 생후 6개월된 아들을 두고있다.



◇살인범 클리포드·올슨

뜨게질 보다는 폭탄 떨어뜨리겠다

◇여성잡지〈글래머〉지가 최근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0%의 미여성이 전시에 여성도 군대에 징집돼야 한다고 본다.

응답자들의 징집 희망이유도 갖가지인데 한여성은 "군대간 동생에 부쳐줄 양말짝이나 뜨면서 집에 앉았느니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며 폭탄을 떨어뜨리는게 낫겠다"고 하는가 하면, 또 한사람은"군대가 여성에게도 좋은 경력이 되며, 여성도 남성에 못지않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있다"고.

30대 이후출산늘어 자녀교육상 효과적

◇타임지는 최근호에서 30대 이후 첫아기를 낳는 여성이 급격히 증가, 초산모 전체의 25%가 뚜렷한 자기직업을 갖고 돈도 잘버는 여성들로 아이를 낳는 연령이 점차 늦어지는 현상은 여성들이 교육과직업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 때문이라고 보도.

30대 이후에 낳는 경향은 대체로 경제적 여유가 있고,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교육이론에도 밝아 자녀교육에는보다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최근 40대 이후에 아이를 낳은 여성으로 배우 쾌이·다나웨이(41) 우르슬라·안드레스(45) 등을 꼽았다.

죽어가는 환자

병원간 이송금지

토론토의 검시 배심원은 병원이 죽어가는 환자를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하는 초안을 작성했다.

이같은 배심원들의 제안은 지난해 11월27일 폐렴으로 죽어감에도 불구, 서니브룩 메디칼센터에서 퀸·엘리자베스 병원으로 이송된 에바·츠피코브스키의 죽음을 심리한 뒤에 취해진 조처이다. 그녀는 이송후 8시간만에 숨졌다.

11일 검시배심원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모든 환자는 병원에서퇴원하는 날 검진을 받아야 한다.

□환자가 퇴원시 담당의사의 서명이 든 퇴원 명령서가 같이 있어야 한다.

□병원간 환자의 양도에있어서 연락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 즉 인수 병원의 스탭들에게 방출병원에서는 가장 최근의 신체상황, 실험실, X-레이및 약물치료 보고서를 제공해야한다.

□의사와 간호원은 환자치료과정을 자세하게 매일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보다 앞서 퀸·엘리자베스병원 의사 새무엘 라이스텐버그 박사는 배심원앞에서의 증언에서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그의 병원 급성환자 병동에 이송될 때의 상태는 대부분 의술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에바·츠피코브스키 여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그녀가 그런 중환으로 이송된 것을 보고 놀랐다며 그가 처음 검진할때 얼마 안있어 그녀가 죽을 것으로 알았다고 밝혔다.

단돈 $1천서 백만장자

〈타임〉지,교포사업가 황씨격찬

전자산업의 메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교포 비즈니스맨 필립·황(45, 한국명 황규빈)씨가 최근호 시사주간지 타임지에 크게 소개됐다.

타임지(2월15일자)는 60년대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와서 아르바이트로 유타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75년 단돈 9천달러로 텔레비데오시스팀을 개발, 각광을 받아 현재는 백만장자로비즈니스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격찬했다.

또한 타임지는 경제와비즈니스란에 필립·황씨의사진을 다른 2명의 성공적인 전자산업비즈니스맨과 함께 게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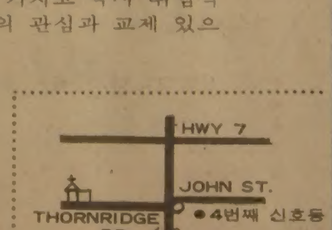
필립·황씨의 성공적인활약은 텔레비데오 시스팀제조회사로서는 미국시장점유율 25%를 차지하는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컴퓨터까지 생산하는 필립·황씨는 5년후에는 5억달러판매를 목표하고있다.

◇컴퓨터 생산까지 꿈꾸는 황규빈씨

가정의 벗
한국일보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안 내 말 씀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새이름을 가지고 목사 취임식을 거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배전의 관심과 교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새 이 름 : 시 민 교 회
목사취임식 : 1982년2월20일(토) 오후1시
취임목사 : 조 성 관 목사
교회주소 : 148 THORNRIDGE DR.
THORNHILL, ONT.
교회전화 : 266-4918


시 민 교 회 (구 고신장로교회)
THE KOREAN CIVIL PRESHYTERIAL CHURCH IN TORONTO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 Drive in Hamberg Shop.
주매상 : $13,000 바쁜 네거리에 있음.
가격 : $385,000
* Donuts Shop
주매상 : $4000.5,000.6,000.6500
* Variety Store
주매상 : $6000.5,000.4,500.4,000
★Shopping Centre
①Breadman과Health food Store
주매상 : $5,000 전망밝은 지역.
가격 : $229,000
②Gift 와Hobby Store
년매상 : $170,000
가격 : $80,000
③Television, 전축
년매상 : $300,000
가격 : $35,000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752-7771

맥스(Mac's) 덤핑가격 철회

그동안 협회원들에게 문제시되어온 맥스밀크의 수탈가격(Predatory Pricing)이 철회되어, 2월15일(월)부터 정규가격으로 환원되었다.

작년 가을부터 맥스밀크는 심각한 현 그로서리 업계의 가격경쟁에 대처키위한 방안으로 시내 몇곳의 시범스토어를 지정, 주종품목의 가격을 덤핑, 몇몇 회원상점에 극심한 피해를끼쳐왔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는, 동부지역의 박경택, 김학종, 강성진회원 상점과 서부지역의 김효순 회원상점이었는데, 담배 스몰팩99¢, 라아지팩 $1.35¢, 밀크의경우 2%백당 $1.88¢씩 동원가이하의 가격으로 수개월동안 세일을 실시한 것이다.

이같은 덤핑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며 시달려온 회원들은 스스로 본사와 만나 그 시정을 강력히 호소했으나 교묘한 언질만을 되풀이할 뿐 아무런 효과가 없어, 마침내 협회로 진정해 왔었다.

협회관계자는 이들과 함께 온갖 통로를 접촉하며 백방으로 그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온 것은 본「실협뉴스」를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

이는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수퍼마켓및 체인스토어들간의 불꽃 튀는 프라이스전쟁 때문에 그와중에서 이중고의 피해를당하는 코너스토어들의 뚜렷한 본보기였다고 할 수 있다.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예측되던 맥스본사의 방침이 일시에 철회된 것은, 협회 집행부의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대화의 결과이며, 그 이면에는 현협회 이사이며, 맥스밀크회사의 관리직에 근무하는 서준경씨의 숨은 노력이 크다고 한다.

이번 경우를 거울삼아우리 협회원들은 근시안적인 경영의 욕심을 자제 하고 보다 장기적인 경영안목을 지녀가야 할 것이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공지사항

금번 Rothmans담배회사가 전 토론토시내 각 스토어에 디스플레이(Displar)용 크롬랙을 설치하여 수당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실시해 오다가 회사의 예산관계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수정하여 싸인을 강요한 일이 발생했읍니다. 협회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많은 회원들의 진정에 따라 관계된 회원들의 현황을 파악키 위해 급히 협회사무실로 자세한 내용을 신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이는 일방적인 회사의 처리가 불공평하여, 해당 회원들을 함께 묶어 패케이지로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시정시켜 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신고기간 : 1982년 3월5일까지

한인실업인협회장

—●집행부 동향●—

2/15/82 :

①오샤와지역의 회원들이 지역적인 문제로 인하여독립된 협회로 발족키 위한 움직임이 태동하여, 독립채산제에 의한 협회 분실 설치 가능성 타진을 위해 지역대표들과 회담함.

②멀티 메디아(Multi-Media) 사장 죠·드윅(Joe Dwek)과 회담. 협상 완료단계.

POCKET BOOK의 딜

$1,000이하 Sale—30%
$1,000~$1,500—
30%+2.5%(rebate)
$1,500~$2,000—
30%+5%(rebate)
$2,000이상 —
30%+7%(rebate)

③Prudential Assurance와 회담
Group Dental Insurance및 Group Store 보험에 관한 협상.

이사회 이사장단 구성

지난 12일(금) 하오7시 한인회관 회의실에서 제2차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다.

회의는 이날 저녁 7시45분에 개최가 선언되고, 전 회의록 낭독, 집행부 보고, 추경예산안 심의, 분과위원회 구성등을 결정하고, 부이사장 백경락, 총무이사 이춘수, 서기이사 이학현씨를 인준했다.

제출된 안건중 이사회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하여진지하게 토의되었는데, 결국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그목적의 기능을 활성화하기위해 업무분야에 대한 깊은 연구로 분담, 내용을 확정하여 내규로 제정하기로결정하였다. 또한 각 이사들의 분과위원회 소속배정과 위원장의 선출은 이사장에게 일임하여 차기회의에보고하여 구성하도록 의결했다.

한편 차선경 회장은 집행부 사업보고에서 Complain상담실의 설치완료와 운영실태및 전담실장의 임명경과를 알리고, 간단한 소개를 했다.

아울러 강공선 실장의인사말을 들은 후, 새로 가설된 핫라인전화 "752-0171"번을 전회원이 적절하게 이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자고 다짐했다.

저녁식사로 제공된 켄터키후라이 치킨을간단히 나누고, 연속회의를 진행시킨 이사들의 열의는 대단했으며, 협회발전을 위해 실제적인 문제점들을 기타 토의시간을 이용, 제기하여 집행부 관계자들에게새로운 조언과 아이디어들을 교환한 후 10시25분 폐회했다.

제2차 정기이사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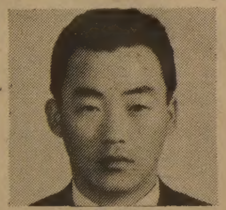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사장 김태진씨는 함께이사회를 이끌고 갈 부이사장 백경락, 총무이사 이춘수, 서기이사 이학현씨를 각각 선임하여 인준받음으로써 마침내 이사장단의구성이 완료되었다.

이로써 집행부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구로서 상호견제하며 알찬 사업을 이룩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사장단의 인적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김태진 씨

김태진 이사장(1935.7월생)
• 서울대학교공과대학졸업
• 육군대위 제대
•「반달표」양말 공장장
• 캐나다 이민(72년)
• 스토어 경영(74년)
• 실협 이사장(81년)



◇백경락 씨

백경락 부이사장(1934. 12월생)
• 경희대학교경영대학졸업
• 육군대위 제대
• 상문고교 교사
• 캐나다 이민(72년)
• 스토어 경영(76년)
• IBM근무. 사격협회장

◇이춘수 씨

이춘수 총무이사
• 연세대학교 정외과 졸업
• 대창산업 경영
• 캐나다 이민(71년)
• 대우실업 토론토지사장
• 미시사가한글학교이사장
• 스토어 경영(76년)

◇이학현 씨

이학현 서기이사(1948. 10월생)
• 한양대학교 졸업
• 캐나다 이민(73년)
• 스토어 경영(76년)

〈꽁뜨〉

두해사이의 거리 (하)

조 정 대
(문인협회장겸 실협이사)

다음 순간 약속이나한듯, 두명의 경찰이 권총을 뽑아들었다. 신속하고 절도있는 동작들이었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건장하고 나이들어 보이는경찰이 내 손에서 열쇠 꾸러미를 뺏듯이 받아 들었다. 그리고는 나를 벽쪽으로멀찌감치 밀어붙였고, 다른 두 사람은 출입문을 좌우로 해서 수사영화에서나보던 민첩한 동작으로 몸을 숨기고 갈라섰으며, 나머지 두 사람은 차에 차폐 하여 권총을 꼬나들었다.

문이 열리고, 잠시후 불이 켜졌다. 조심스럽게들 고양이걸음으로 가게안을 빠짐없이 뒤졌으나 별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지하실로 내려가면서는 사정이 좀 달랐다. 삼십년은 조히 넘은 건물이라 발을 옮겨놓을 때마다 나무계단에서 나는 기분 나쁜 마찰음은 그만두더라도 우선 밝지 못한 두개의 백열등이 시야를 흐리게 했다.

이번에는 콧수염이 참하게 생긴 젊은 경찰이 앞장이고, 한명은 앞문, 또 한명은 지하실 입구, 그리고 다른 한명은 뒷문에 버티어 서고 나를 제일 뒤로해서 세명이 내려갔다.

천장에 닿도록 재어놓은 드링크케이스 더미 사이로 물고기가 해엄치듯 빠져다니는 모습은 실로 날렵했다.

얼마의 시간이 또 흘렀다. 「와장창창!」

순발적인 동작으로 제각기 몸을 숨겼다.그리고 잠싯동안 아무 소리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안심들 하라고.」

얼마후 소리난 곳으로조심스럽게들 모여들었을 때 그곳에 펼쳐진 장면은 참 가관이었다. 스물네개들이 작은 빈병케이스들이 넘어지면서 작살이 난 옆에는 그 콧수염이 잘 생긴 젊은 경찰이 빙그레 웃는 얼굴로 펑퍼질고 앉아있지 않는가?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는 한바탕 박장대소하는 웃음바다를 이룬것도 거의 동시의 일이었다.

다들 웃층으로 올라왔다. 위에 있던 경찰들은 무슨 일이 있었더냐는 듯 담배들을 빼어물고 제각기 더리 북(dirty book)을 하나씩 빼어들고 히히덕거리고 있었다.

생각할수록 민망했다.그리고또 고맙기도 했다.

「미안합니다.괜히 수고만 끼쳤읍니다.

「천만에요. 다음부터는문 닫기전에 꼭 지하실까지확인하는일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나이들어보이고 건장한 키큰 경찰이 내가 미안해하는 정도를 짐작이나 하듯 손을 잡으며 말했다.

밖에는 여태 눈이내리고 있었다.

0시가 조금 지난시각, 순백의 눈이 밝아오는 새해를 축복이라도 하듯이복스럽게 내리고 있었다.

「Happy New Year!」

모두들 악수를 나누며포옹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환한웃음을 남기고 손을 흔들며 차를 향해 걸어 갔다. (끝)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三國志 (116)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Hammond and Company
Accounting, Tax and Management

JOSEPH HAMMOND
TEL. 496-0366
37 HAWLEAF CRESC.
WILLOWDALE, O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셉 하몬드입니다. 저는 19년간의 어카운팅업 종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실업인협회 회원들의 어카운팅, 또는 북키핑 써비스로 봉사하기를 열망합니다. 신속 정확하고, 특히 세무감사에 대한 대비에 많은 경험이 있읍니다.

학 력 American University Lebanon Diploma, B.A. 자격 R.I.A.자격 Certificate for proficieney in Economics from London chamber of commerce.
경 력 19년 Worked with large firms of chartered accountants Arthur & Anderson (4년) Dunwiidy co (2년) Owner of Hammond & company, AccountNG and Tax firm (7년)

WEDDING DREAMS LTD.

결혼에 필요한 모든준비가 되어있읍니다. 들리기만 하십시요.

● 웨딩가운 TUXEDO렌트 또는 세일
● 사 진
● 초청장 주문
● 꽃어랜지
● 결혼케익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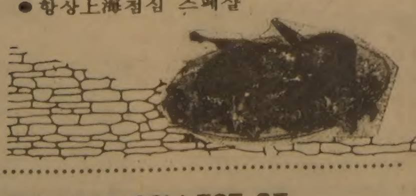
811 DUNDAS ST. W.
365:0995

京 華 樓
(경 화 루)
PEKING— 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특별 : 북경오리 음식

※겨울 스페샬(Peking Duck & Fire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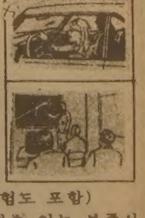
●진미의 해산물 요리
●국수, 야채전문
●항상上海점심 스페샬



주소 :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30A. M.~10:00P. 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ER TRAINING CENTRE

운전을 배우실 분들!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으니 택해 보세요.



1. 완전코스($199.00)
●25시간의 실내강의
●10시간의 운전교습(운전시험도 포함)
●차보험 액을 최대로 할인할수 있는 보증서 발급
●인컴텍스 공제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학교방학동안도 함.
2. 짧은(MINI)코스($69.00)
●3번의 운전레슨
●운전시험때 차대여해줌
3. 씽글(SINGLE) 레슨($15.00)
●한번의 레슨
※운전시험때 차대여는 $15.00

All Courses Approved & Registered by the Ontario Safety League

2489 BLOOR ST. W. STE. 210
(JANE지하철 근처임)
766-4441, 766-4644
월~금 : 9시~6시30분, 토 : 9시~1시까지

서울·中部지방에 地震

14일밤11시37분 2초동안 계속 震度3…餘震도 2차례

震央 水色~汶山사이, 光州·江陵등感知못해

진도3의 지진(地震)이 14일 밤 서울지방을 기습, 휴일 잠자리에 들었던 시민들을 크게 놀라게 했고 그밖의 지역 주민들도 불안감을 느끼는등 전국에 걸쳐 지진 소동이 일었다. 하오11시37분께 발생한 이번지진은 1905년 중앙기상대가 지진계를 설치, 관측을 시작한 이래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8번의 지진중 가장강한 것이었다. 중앙기상대는 이번 지진의 진앙(震央)은 중앙기상대 북서쪽 15㎞지점인 경기水色과 汶山사이(북위37도35분·동경1백26도57분)였고 이지진에이어 15일상오 0시31분부터 42초간, 0시53분부터 6초간등 각각두차례의 餘震이 있었으나 이여진은 진도0으로 지진계에만 기록될 정도였으며 진앙지인 서울을중심으로 전국으로 번졌으나 강도가약해 무감(無感)지역도 많았다고밝혔다. 이번 지진의 영향은 주로 서울 일원에미친 것이었으며 경기일원과 충남북 강원일부 지역과 추풍령 이남의 남부지방등 전국에걸쳐 여파가미쳤으나 두차례에걸친 여진이후 일단 소멸된것같다고 기상대는 밝혔다.

기상대에 의하면 지진이 기습했던 서울등 중부지역은건물이 흔들리고 그릇의물이 출렁일정도로 모든사람이 몸으로 느낄수있는 감진(感震) 구역이었고 진동이 두차례에 걸쳐 3~5초가량 계속됐으며 강도는 서울3도, 水原·仁川·春川·楊平이 각각 2도, 瑞山·大田·大川·堤川·江陵이 각각 1도였다. 지진시간은 1초~1분8초 동안으로 서울지역이 밤11시37분53·7초부터 약2초동안, 江陵은 38분33초부터 39분41초까지 1분8초등으로 가장 길었으며 光州는 38분22초부터 39분15초까지 53초동안으로 기록됐다.

중앙기상대는 이번 지진의 강도로보아 黃海道 일원에도 강도2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平南·咸南지방 일부지역에도 진도1정도의 지진이 일어난것 같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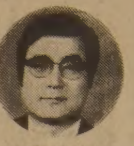
◇중앙기상대 직원들이 진폭이 표시된 지진계의 그래프를 보면서 강도와 시간을 분석하고있다。

銀行관리企業 단계적整理

羅財務밝혀 合板業등 40개業體 첫대상

大企業 편중貸出 과감히 是正 / 中小·零細業중심으로 개편

羅雄培재무부장관은 15일 금융정상화방안의 하나로 각금융기관이 직간접으로 간여하고 있는 관리기업 가운데 부실기업을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하는 한편 대기업에대한 편중대출을 과감히 시정토록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자율화를 저해하는 각종 비합리적인 금융관행이나 행정적조치는 바로 시정해나가되 금융산업개편을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는 충분한 연구검토와 법규개정을 통해 차분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융정상화방안은 13일 全斗煥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羅재무장관

羅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금융정상화를 위한 은행의 책임경영및 건전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과거의 부실채권정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정리방법은 부실기업을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정리하지않고 금융정상화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것부터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하겠다고 말했다. 羅장관은 이번부실기업 정리는 우선 은행에서 직간접으로 경영에 간여하고있는 은행관리기업을 검토대상으로하여 부실기업판정이 내린 기업에 대해서만 정리하되 정리과정에서도 사회경제적 영향을고려해서 해당기업근로자들의 취업알선이나 퇴직금지급등 후속조치를 취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서히 진행시켜 나가도록하겠다고 밝혔다.

羅장관은 은행이 한번 대출해주면 기존대출금 회수문제때문에 부실기업에대해서도 질질 끌려가면서 계속대출해주던 과거의 금융부실요인은 이번에 철저히 정리토록하겠다고 강조하고 각은행은 은행장책임아래 자율적으로 마련한 부실기업정리 계획에따라 정리토록하되 정리실적은 은행장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부실기업 판정기준은 현재 은행감독원에서 마련중이다.

羅장관은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대기업에대한 보증비율이 36%에 이르는등 은행대출이 대기업에 치우치고있는데 이번 부실채권정리와 병행해서 대기업에 대한 편중대출을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2년이내에 은행대출이 중소기업이나 신용있는 영세상인등 중소기업중심으로 전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재 은행이 직간접으로 경영에 간여하고 있는 관리기업은 40개내외이며 업종별로는 합판업이 가장어려운 형편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周國防·스틸웰歡談

리처드·G·스틸웰 美국방성 정책담당부차관(前 주한유엔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지휘통제및 통신및 정보업무에관한 시찰을위해 美합참 통신국장 힐맨·디킨슨 육군중장을 대동하고 13일 내한했다. 스틸웰부차관은 15일 상오 방한 첫일정으로 周永福국방부장관을 예방했으며 오는1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팀·스피리트82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전방지역과 昌原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15일 스틸웰부차관의 장남인 리처드·G·스틸웰 2세도 육군중령으로 현재 주한美2사단에 근무하고있다고 밝혔다.

韓日協力委 회장에 南悳祐씨 내정

韓日協力위원회 한국측 회장에 南悳祐전 국무총리가선임됐다. 金永善전회장은 사표를제출、수리되었다.

北傀 外航船선장 歸順

「增産號」의 康德壎씨 배修理中 3國통해

"航海中좌초…事故문책 두려워" 亞·阿게릴라에 武器수송경험

북한의 조선동해해운회사소속 1만4천톤급 외항화물선 增産號의 선장 康德壎씨(46·南浦市後浦洞49)가 제3국을통해 자유대한의 품으로 귀순해왔다. 康씨는 15일상오 서울자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귀순동기를 밝히고 金日成부자의 족벌세습책동, 전쟁준비, 亞阿지역에대한 무기위장수출등 북한의 최근실정을 폭로했다.

康씨는 북괴의 2·3급국기훈장과 공로메달을 받은열성당원이며 副部長(차관)급의 높은보수(월 1백60원)를 받으면서 외항선 선장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등 30여개국을 왕래해왔는데 3년전 폴란드에서 1백80만달러에 사들인 중고화물선 증산호가 자신의 지휘아래 작년2월26일 스리랑카 남단을 항해도중 암초에걸려 선체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는것. 康씨는 이배를 싱가포르의 캐펠선박수리소로 끌고가 그해7월부터 6개월간 배수리를 했는데 이때 선박구입비의 절반이 넘는 1백만달러의 수리비부담이 자신의장래에 미칠 책임을 놓고 고민을 했으며 싱가포르에서들은 자유대한의 발전상에 이끌려 지난1월 북한공관원과 배의감시책으로있는 정치부장등의 감시망을 뚫고 제3국으로밀항했다가 한국으로 귀순했다고 밝혔다.

58년6월 군복무중에 노동당에 입당, 60년3월 북괴군상사로 제대한 康씨는 金日成종합대학 생물학부 실험실조수를 거쳐 元山水大 해양학부를 졸업한후 준설선의 2등항해사를 거쳐 73년8월 북괴외항선 혁신호의 3등항해사로 처음 외항선원이 되었으며 그후 송림호 선장을 거쳐 79년9월 북한이 가진 27척의 외항화물선중 대형에 속하는 增産號의 선장으로 발탁되었다. 康씨는 자신이 북한사회에서 남이부러워하는 외항선 선장으로 출세하기까지는 사력을 다한 당에대한 충성과 외에서 구입한 외래품의 물상납으로 당간부들의 환심을산 결과였다고 말했다.

康씨는 최근 북괴는 「金日成70회생일준비요강」이란것을 시달, 金正日의생일인 2월16일부터 金日成생일인 4월15일까지를 「충성의 충천기간」으로 정하고 전체사회가 생산계획조기달성과 기념건물 조기완공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그성과를 충성의선물로 바치도록 강요하고있다고 폭로했다.

康씨는 또 그동안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좌익게릴라를 지원하기위해 수시로 무기를 위장수출해왔다고 말했는데 지난74년 12월과 75년11월에는 자신이 항해사로 일한 혁신호가 아프리카지역에 고사포와 포탄、소총과 탄약을 싣어날랐고 80년12월에는 증산호가 中東지역에 고사포와 대포를 농기계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송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康씨에의하면 북괴는 모든 외항선에 외화의상납을 강요하고있으며 증산호의경우 기항지에서의 상품밀매, 추가화물수송, 선내식수절약등으로 연간 4만3천달러를 벌어다 「충성의 헌금」을 바쳐왔었다 하면서 81년1월 증산호가 출항할때 육·해운부장(장관) 방철갑과 당비서 윤며상등 고위층이 자기를불러 외제상품을 사줄것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또 康씨는 「북한에서는 생필품이나 경공업제품이 부족하고 품질이 조잡하기때문에 일반주민은 물론 당고위직등도 자본주의국가의 외제일용품이라면 사족을 못쓴다」고 말했다. 그는 북괴 해군사령관(중장)에서 체육·해운부장에 승진한 방철갑은 「입을만한 신사복이 없다」며 「영국산양복지를 한감 사다달라」고 부탁했고 황해 제철소 사로청위원장은 黃錦塊 2·7돈을 밀매하여 몰래주면서 「이것을 팔아 외제물품을 사다달라」고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康선장은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온 옛 平北熙川국민학교 동창생 金權度씨(46·상업·서울恩平區水色洞191)를 32년만에 만나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다.

主席 胡耀邦등 다시公席에 肅淸작업관련 潛跡 했다가

【北京15日外電=綜】지난3주동안 종적을 감추어온 중공의 당주석 胡耀邦과 수상 趙紫陽등 고위지도자들이 체포 및 숙청운동이 새로이 전개되고있는가운데 15일 다시모습을 드러내 공식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1월25일이래 소재불명이었던 胡耀邦과 趙紫陽은 이날 북경을 방문한 외국고위인사들과 회담했으며 미국기자인 故에드가·스노우씨의 사망10주기 기념행사에는 부수상 黃華등이 참석했다. 중공의 관영언론들은 앞서 14일 이념적인 적을 비롯, 부패관리와 고령의 당간부들을 제거하기위한 투쟁을 주도하기위해 지난 1월12일부터 행방을 감췄던 당부주석 鄧小平과 함께 공석에서 모습을 감춘것으로 보이는 胡와 趙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이들 지도층의 결속을 과시하려 했었다.

◇3黨총무들은 15일 民韓黨黨職개편후 처음 會同한자리에서 제110회 임시국회日程을 합의, 順調로운 스타트를 했다. ㊧로부터 林鍾基民韓, 李鍾贊民正, 李東鎭국민당총무.

26일 臨時國會소집

會期16일 國政보고·政黨대표 質問등

3黨總務, 議事日程 합의

국회는 제110회 임시국회를 오는 26일부터 3월13일까지 16일간의 會期로 열기로했다.

李鍾贊 民正, 林鍾基民韓, 李東鎭국민당총무는 15일하오 民韓黨의 林총무 취임후 첫총무회담을 열고 제110회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논의, 이같이 합의하는 한편 구체적인 의사일정까지 결정했다.

제110회임시국회는 26일 개회식에이어 국무총리의 國政보고를듣고 3일간 休會한뒤 3월2일에는 각당대표의 대표질문을, 3일부터 6일까지는 정치·외교·안보, 경제, 사회등 3개議題별로 對정부질문을하는 한편 질문자수는 民正3、民韓2、국민1、議政同友會1명으로각각결정했다. 이어8일부터12일까지 5일간 常任委를열어 관련부처의 현황보고와 정책질의를벌이고 13일 본회의를열어 閉會키로했다.

이날 총무회담은 또국민당이 제출한 국민학교 週5日制수업건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것으로 알려졌다.

3黨 3役회의 20일께 갖겠다 權民正사무총장

【光州=李在武기자】權翊鉉민정당사무총장은 15일 『民正、民韓、국민당의 사무총장、정책위의장、원내총무등 3黨3役회담을 오는 20일께 열어 당면한 정치현안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全南지역 현지당원 교육시찰차 光州에온 權총장은 이날 상오 民正黨全南도지부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3黨3役회담에서는 국회운영을 포함한 정치적 안정기반구축과 정치자금문제등이 논의될것』이라고 말했다.

社会漫評

地平線

『사람과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기념물이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철학자들이 말해왔다. 지진이 한번 나고보니 그말을 알수있다. 땅이 몇㎝ 움직였다고 3천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역사적인 보물들이 망가졌다』—80년 12월 이탈리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뉴스위크는 이렇게 말했었다. 지진대를 벗어나서 살고있는 우리로서는 실감할수없는 말이다.

▼과학자들은 이제 정확하진 못하지만 대충 언제쯤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수 있게 됐다。예를들자면 미국 대륙의 태평양쪽 캘리포니아에서는 20세기가 끝나기전에 한차례 큰 지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냐가 아니라、다만 언제 일어날 것이냐가 문제』라고 미국 지질연구소의 데이비드·힐이라는 사람은 말하고있다.

▼지금의 지질학은 또는 지진학은 몇10년에 걸친 장기적인 예측을 할수있게됐다。과학자들은 지구가 초컬리트를 입힌 버찌와 같다고 지진이 일어나는 연유를 설명하고있다。초컬리트란 산·골짜기·들판같은 땅과 바다로돼있는 소위「地殼」이다. 지구의 한가운데는 잘 알려진것처럼 쇠붙이가 녹아있는 용덩어리로 돼 있고、껍질이라고 할수있는 지각과의사이에 엷은 피부가 둘러싸고있다.

▼지구의 중심을 감싸고 있는 이피부는 뜨거운 열때문에 끈적끈적하고 탄력이있는 기름과도같은 상태다。그위에있는 지각덩어리들이 기름위를 미끄러져다니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설명한다. 덩어리와 덩어리사이에 깊은 홈이있는 소위「斷層」을 깊은 바다밑에서 볼수있는것은 이때문이다。히말라야산맥도 인도 대륙이 아시아와 충돌했을 때 생긴 주름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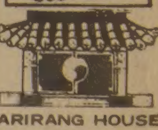
▼지각은 10개의 큰덩어리와 몇개의 작은 덩어리로 돼 있다한다。이 덩어리들은 1년에 2~3㎝씩 움직이고있다。수에즈운하로 들어가는 홍해의 길목인 아덴만은 한해평균 2~3㎝씩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수있다。지진이란 이 덩어리와 덩어리의 마찰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태평양 덩어리와 맞닿은 홈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맞닿는단층지역이 바로 일본이다。한반도는 단층에서 떨어진 안쪽이기때문에 지진과는 인연이 적은편이다. 그러나 80년4월 서울대 연구팀은 전국의 공업단지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었다. 약하기하지만 14일밤에도 지진이 있었다。그런데도 일요일이었기 때문인지 관계기관들은 한마디의 해명이 없었다。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라고 한탄할수밖에 없는일이다.

팀스피리트82훈련 北傀、參觀거부표명

【서울=外】北傀는15일 유엔측이 韓半島긴장완화를 위해 南北韓 쌍방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상호참관할것과 함께 「팀·스피리트82훈련」에 대해서도 北傀측의 참관을 공식초청한데 대해 이를정면 거부하고나섰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하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海底광물資源은 人類공동재산"

4개國 密約에 큰反撥

유엔海洋會議 주요爭點으로

日등 "제3世界만 犧牲" 비난

美, 國際기관설립案에 原則的찬성

【런던洪=聯】 최근 미국·영국·프랑스·西獨등 서방4개국이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비밀협상을 가진 것과 관련, 日本을 비롯한 협상제외국가들은 이를 4국이 제3세계를 희생시키는 해저광물자원의 분할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서방4개국의 접촉소식은 東京에서 처음으로 누설된데 이어 英외무성이 12일 이를 확인했다.

이번 회담에서 서방4개국은 심해광물에대한 서반구의 협력문제도 토의한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은 이문제가 제3세계와의 정면충돌을 야기할것으로 믿고있다.

일본외무성은 12일 西方4개국이 오는19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英외무성대변인은 정확한 회담일정이 잡혀있는것은 아니지만 현재 공식협상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4개국의 접촉소식으로 말미암아 미개발해저 광물자원을 세계공동체, 다국적탐광회사중 누가 관리해야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양전문가들은 이같은 논란이 다음달 뉴욕에서 개최될 제1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표면화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서방분석가들은 이 논란이 南·北관계의 시험케이스가 될것이며 해양법의 입법을 위한 국제협정에 장애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서방4개국들은 공해해저의 원광채굴권을 이들 4개국 국민에게만 주는 일방적인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거나 도입할 계획인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소식통들은 이들4개국이 탐광권의 중복을 피하기위해 공동면허에 관한 협정에 도달할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협정은 해저의 광대한 지역에대한 면허를 허용할 것이나 오는 1988년까지 상업채광은 금할것으로 보인다.

日本외무성은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역시 이 협정에 참여할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7개국은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소위 「뜻을 같이하는」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해저광물개발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태평양을 비롯 각해양의 심해에 널리 분포돼 있는 망간團塊개발문제이다. 지난74년 해양법회의가 시작된 이래 해저부존자원은 인류의 공동재산이 돼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약1백50여참가국가운데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는 해양법초안은 해저광물채굴을 관장할 국제기관의 설립을 요청함으로써 이같은 합의를 실질화시키고있다.

해양법초안에 제시된 국제기관은 해저광물에 대한 채굴면허발급, 빈곤국가들을 위한 세금징수부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등을 관장할 것이다.

그러나 레이건美대통령은 해양법회의재개에 앞서 국제해양법재가를 위한 미국의 전제조건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1월말 한성명에서 미국은 장차 설립될 국제기관에서의 1개국 1투표권을 반대하며 美國의 정치·경제력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국제기관이 선진기술의 공유와 선진국의 재정부담가중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이건 대통령의 이같은 성명은 국제해양법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10개월간에 걸쳐 면밀히 검토한끝에 나온것이다.

해양법협상에 깊이 개입했던 해양법전문가들은 이것이 미국의 입장경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그 서방선진동맹국들은 다음 2가지이유 때문에 심해광물채굴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있다고 해양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첫째 해저망간이 점차채굴이 어려워지고있는 육상망간에 대한 대안이될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서방강대국들이 아프리카諸지의 잠재적 불안정국가들로부터의 망간공급에 의존하지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국제焦点

◇눈덮인 고지로 탈주하는 중공군。美CIA 공작결과 이들의 춘계공세를 3개월정도 늦춘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中共行 藥品 수송船탈취

7만5천여 聯合軍 구출

WP紙, 「韓國전쟁·알려지지않은 이야기」 秘話공개

CIA、春季공세 遲延성공

印서支援 醫師·간호원乘船 臺灣海上서 나포

TP스톱작전—한국전쟁 비화중 미국CIA가 연출한 가장 엄청난 비화의 하나이다。중공군의 춘계대공세를 3개월 이상이나 연기시키고, 아마도 人命으로 환산하자면 7만5천명의 연합군 생명을 구한 상상을 초월한 大스파이작전이다。이비화는 지금까지의 어느 첩보스토리보다 드릴과 흥미가 있다。최근 미국의 논·픽션작가 조셉·굴든은 각종정보기록을 토대로 「韓國—알려지지않은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 처음으로 이 비화를 소개했다。워싱턴·포스트는 이숨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특집으로 전재했다。한편 또다른 정보전문가들은 작전의 주동자 한스·토프트의 CIA내 행적에 의문점이있고, 추문사건과 관련, 66년 CIA에서 파면된것으로 보아 이기록의 정확함에 의문이있다고 평했다。【워싱턴15日=曺淳煥특파원】

51년1월중순 일본 모처에 자리잡은 CIA 극동아시아 지부, 극동지역 책임자 한스·토프트는 책상위에 워싱턴 CIA본부로부터 발급전달된 극비사항의 긴급메시지를 놓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메시지 내용은 다음과같았다。

『인도의 네루수상 정부가 중공을 원조하기위해 의약품과 의료진을 노르웨이의 화물선에 실어 한국전선으로 보냈다。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중지시키라』

한스·토프트는 이 메시지외에 또하나의 부전지를 받았다。

『이작전을위해 본부의 승인없이 1백만달러를 사용해도좋다』

당시의 1백만달러라면 엄청난 돈。어떠한 첩보작전일지라도 그만한비용을 들일수는 있었다。워싱턴의 굳은결의를 분위기로 감지한 한스·토프트는 이작전을 수행키로 했다。

워싱턴의 결의는 인도 네루수상정부안에 박혀있는 CIA첩자로부터 보고가 근거가됐다。보고에 의하면 네루수상은 말로는 중립을지키겠다고 선언했으나 뒷구멍으로 중공을 지원키로 했다。우선 한국전선에서 중공이 가장화급한물자는 의약품과 의료진으로 이를 보내기로했다。중공은 인도가 마련한물자를중립국인 노르웨이의 화물선을 대여해 봄베이항으로부터 실어오기로했으며 그 화물선이 이미 봄베이항을 출항했다는 것이다。

화물선에 선적된 물품내용은 엄청난것이었다。당시엔 미국을 제외하고는 절대생산량이 달려 구하기 힘들었던 페니실린과 3개의 야전병원 시설이 실려있었다。페니실린은 38선 이북의 모든 적군에 1인당 최소한 3대의 주사를 놓을수 있는 양이었다。의료작업을 맡을 의사 약사 간호원들도 실려있었다。그밖대한 규모의 의료진과 의약품이 중공군 손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재빨리 대공세를취할수있는 힘이 생길것이다。그렇게되면 아직 적의공세에 대비, 적절한 포진을 하지못한 연합군은 이를 막아내기위해 최소한 수만명의 생명을 앗길것은 뻔한일이었다。

이미 두차례에 걸쳐 대공세를 취했던 중공군은 대부분의 병사가 추위와 병마에 지쳐있었다。얼어붙은 전선은 그들의 손과 발을 동상으로 고통받게 했다。극심한 기근은 병사들의 사기를 더욱더 떨어뜨렸다。

사실 北京의 작전본부는 한반도전선으로 부터 시급한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놓고있었다。수만명의 중공군들이 폐렴과 장질환등 몸을앓고있었으며, 손이 동상으로 썩어 수류탄 투척을 할수없는 처지였다。이런 상황하에서 중공군의 재빠른 대공세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CIA극동책임자 한스·토프트는 작전의 성공을위해서는 한가지방법밖에 없음을간파했다。공해상의 해적행위였다。공해상에서 중립국소속선박의 항해를 중지시킨다는것은 큰외교분쟁을 일으킬소지가 많기 때문이다。CIA요원이 해적을가장해 배를 탈취하고 귀신도 모르게 배에 실려있는 화물과 사람들을 처분키로했다。실로 위험스럽기 짝이없는 「비인도적」 해적작전이었다。작전이 실패돼 세상에 알려진다면 미국의체면은 말이아니게 떨어지게 마련이었다。CIA요원들중에서도 이작전이 성공하리라고 낙관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작전의 수행은 더욱 황급했다。화물선은 봄베이항을 떠나 臺灣북부 공해상을 항해중으로 곧 한국전선에 도착할 거리까지 와있었다。

한스·토프트는 臺灣으로 날아가 蔣介石총통을 만났다。작전의 도움을 요청했다。정부대 정부가 아닌 순전히 개인대 개인의 요청이었다。다행히 蔣총통은 토프트의 요청을 선뜻 응낙했다。蔣총통은 『토프트씨가 원한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말고 제공하라』고 군과 정보요원들에 명령했다。

토프트와 CIA요원들은 자유중국해안경비대의 포함을 빌어 공해상의 길목을 지키고있었다。그들의 다른 CIA지부가 봄베이 출항때부터 계속 화물선의 행방을 탐지하고있어 길목을 알아내는데는 누워 떡먹기였다。

자유중국의 포함은 길목에 나타난 화물선을 즉각 정선명령했다。그사이 CIA요원들은 몸을 숨기고있었다。무장군인들에의해 화물선은 재빨리 점령됐다。모든 통신은 두절된 상태에서 화물인 의약품과 의료시설물은 자유중국 포함에 옮겨졌다。CIA의 해적행위는 결국 완벽하게 성공을 거뒀다。

화물선에 승선했던 의사와 간호원등 「사람」들의 행방은 지금까지 알려진바가 없다。

화물선은 텅빈배로 되돌아갔다。아시아의 해적들에게 모든것을 털렸다고 전문만을 보냈을 뿐이다。

이후 중공군이 다시 밀려 내려왔을때 연합군은 적절히 포진을 갖춘 뒤였다。이작전으로 적의 춘계대공세는 최소한 3개월이상지연되고 아마도 7만5천명이상의 연합군 생명을 구한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이란 回敎革命 3주년　이란군인들이 지난11일 이란회교3주년기념일을 맞아 테헤란아자디광장에서 행진하고있다。【테헤란14日AP電送=聯合】

키우·삼판 곧北京에

시아누크와會談…反越聯政논의

【北京15日AFP聯=特約】 키우·삼판 크메르·루지지도자는 곧 노로돔·시아누크前캄보디아국가주석과 反베트남연립정부구성문제를 논의하기위해 북경을 방문하게될것이라고 15일 이곳에서 알려졌다。

키우·삼판은 그의 계획을 전문으로 시아누크공에 통보했다。

AFP통신 북경사무소에 전달된 전문사본에 따르면 키우·삼판은 『베트남 침공자들과 맞싸울 애국세력간의 연립정부 형성에관해』 시아누크공과 논의하기위해 그가 대표단을 인솔할것이라고 말했다。크메르·루지는 지난1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제안한 반베트남연정 구성안을 거부했었는데 중공도 주저끝에 최근 반베트남 3자정상회담개최를 주선하기로 동의했다。

키우·삼판의 전문에 손·산과의 회담문제는 언급이없으므로 오는北京회담에 손·산이 참여할지 안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그러나 믿을만한 소식통들은 손·산이 가까운장래 북경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中共、對日군사유대 增進희망

신임駐日大使밝혀

【北京14日UPI=聯】 중공은 일본과의 보다 긴밀한 군사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北京의 정통한 일본소식통들이 14일 전했다。

신임 駐日중공대사 宋之光은 13일 北京에서 일본기술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우리는 군사분야에서 일본과 상호교환 및 접촉을 증진해야한다』고 밝힌것으로 이들소식통은 말했다。

소식통들은 중공관리가 보다 긴밀한 對日군사관계를 바란다는 중공측의 의중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엘派遣 美고문단武裝

M16으로 「제2越南戰化」 더욱 高潮

【워싱턴·산살바도르13日=聯】 엘살바도르사태가 「제2의 越南戰化」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엘살바도르에 파견된 美군사고문단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좌익게릴라들의 주요활동지역에서 전투무기를 소지하고있는 것으로 보도돼 새로운 말썽을 일으키고있다。

미국의 유선방송 CNN은 13일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美군사고문단원세명이 엘살바도르의 전투지역에서 권총만을 휴대하게돼있는 정부의 무기소지규정을 위반하고 M16소총으로 무장하고있는광경을 방영, 미국의 엘살바도르군사개입 여부를 둘러싸고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는 美정계에 물의를 일으켰다。

엘살바도르에 파견된 美군사고문단원들은 전투에 개입하는것과 신변보호이상의 무기를 소지하는것이 금지돼있다。

한편 CNN의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레이건대통령은 즉각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고 이들이 소총휴대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이를 휴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이들을 옹호했다。

이와함께 딘·힌튼 엘살바도르주재 美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M16자동소총을 휴대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육군중령 1명을 직위해제, 1주내로 엘살바도르를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하급장교1명을 포함, 기타 위반자들에게는 엄중한 구두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토머스·오닐美하원의장은 엘살바도르사태의 제2의越南戰化가능성을 우려, 지난주초 일단의 조사단을 엘살바도르에 파견했었다。

東獨서 平和시위

촛불行進…"우리勝利하리라"

【드레스덴(東獨)14日=聯】 수천명의 東獨청년들은 13일 연합국의 드레스덴市대폭격3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당국의 금지에도 불구, 전례없는 대대적인 평화시위를벌였다。

이들 東獨청년들은 이날 지난1945년2월13일 연합국폭격기들의 대규모 공습으로 파괴된 드레스덴시내 한교회의 폐허위에 모여 촛불을 켜들고 「우리 승리하리라」란 제목의 노래를 부르며 평화시위를 벌였다。

당국의 허가를받은 공식적인 시위이외는 일체금지되고있는 동독에서 이같은 대규모평화시위가 벌어진것은 전례없는일이다。

호메이니退陣 임박

面會취소…권력 引受작업 진행중

【뉴욕·테헤란13日AP·AFP=聯】 이란회교혁명지도자 호메이니옹(82)은 13일부터 2주동안 일체의 약속과 방문일정을 전면 취소했다고 테헤란 방송이 보도했다。

이와함께 알리·하메네이 이란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美시사주간 뉴스위크誌와의 회견에서 이란당국이 호메이니옹의 퇴진에 대비, 궁극적인 권력승계준비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테헤란방송은 호메이니옹이 오는3월1일까지 일반인들을 일체 접견하지 않을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란의 정신적지도자인 호메이니옹은 현재 심장병을 앓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最優秀강아지　9일밤 뉴욕 웨스트민스터 개클럽이 주최한 개쇼에서 최우수강아지로 선정된 北京產 찰오브리·드라고나라犬公이 상으로 받은 리번을 옆에 놓고 포즈를 취하고있다。【뉴욕AP電送=聯合】

英·中共、友好조약맺기로

홍콩 支配權原則에 合意

【홍콩15日=聯】 영국과 중공은 현재 중공의 조차기간이 만료된후에도 계속 영국의 홍콩지배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우호조약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중국어 경제일간지 차이친일보가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북경과 런던의 정통한소식통을 인용, 이조약이 이미 중공당위원회의 승인을받았으며 험프리·애트킨스 영국부외상도 지난1월 중공방문당시 이에대해 중공지도자들과 충분한 토의를 가졌다면서 자세한 조약내용은 오는5월1일 영국과 중공당국이 동시에 발표, 양국및 홍콩정계의반응을 타진할것이라고 밝혔다。

하마市 새衝突기미

正常회복 주장불구

【다마스커스15日UPI=聯】 대규모 反정부무장봉기가 일어났던 하마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있으며 다마스커스·하마간의 도로가 재개됐다는 시리아 정부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4일 하마시에서 새로운 충돌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보도들이 나돌고있다。

동료·친지들을 방문하기위해 하마시로 들어가려다 군인들의 제지를받고 되돌아온 여행객들은 하마시인근에서 대포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外信안테나

◆아랍外相會議、對이·美응징조치 失敗=이스라엘의 골란고원합병에 따른 對이스라엘 對美대응책을 논의하기위해 13일 소집된 21개국 아랍연맹긴급외상회의는 미국의 對중동정책을 신랄히 비난했으나 이스라엘의 골란고원합병에 대한 구체적 보복조치는 취하지 못한채 회의를 폐막했다。이날 아랍연맹 긴급외상회의가 취한 직접적 對이스라엘응징조치는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축출하기 위해 필요한 예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에 그쳤다。【튀니스=AP】

海外토픽

10세銀行강도 再犯

★칼들고위협 썰매강탈

작년에 9살의 나이로은행을 털어 햄버거등을 사먹고 뮤지컬관람을 하는등 대담한 강도행위를했던 로버트·M이라는 뉴욕소년이 이번엔칼을 들고 강도짓을해 경찰에체포됐다。

경찰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10살이된 이소년은 같은또래의 여자2명과 함께 지난1월30일 뉴욕의 한놀이터에서 썰매놀이하던 2명의 10대어린이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썰매를 강탈했다는 것。

이 꼬마강도단은 썰매를가지고 즉시 도망갔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경찰의 추적으로 마침내 체포돼 가정법원에 넘겨졌다。【뉴욕=AP】

世界서 가장큰女子

★17세中共소녀…2m41㎝

여성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큰 2m41㎝의 소녀가 중공 湖南省에 살고 있다고 중공언론들이 보도。

쳰·진리앙이라는 17세의 소녀는 생후 2~3개월께부터 어머니의 젖외에 매끼마다 죽을 한사발씩 거뜬히 먹어치웠으며 생후 18개월께는 50㎏짜리 시멘트부대를 들어올릴 정도로 힘이 장사였다는것。【北京=UPI】

금괴 25상자캐내

★중공江蘇省 농부3형제

중공동부 江蘇省의 관개공사장에서일하던농부3형제가 금괴25상자와11개의금막대기가 들어있는 보물단지를캐내 행정당국에 넘겨줬다고 중공의 인민일보가 보도。

이 보물단지안에 들어있던 20㎏상당의 금은 국제가격으로 환산하면 24만4천달러를 호가하는 것으로 중공의 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5백75년분도 훨씬 넘는다는것。【北京=AP】

알래스카農地賃貸

資源개발團서 협상

【페어뱅크스(알래스카州)14日AP=聯】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한국해외자원개발사업단은 알래스카에 한국으로수출이 가능한 작물을 실험재배하기위한 농지 2천에이커를 임대하기위한협상을 벌이고있는것으로14일전해졌다。

해외자원개발사업단의 농업분과책임자인 徐錫煥씨는 한국이 니내어의 관련당국과 농지를 10년간 조차하는 문제를 협상중이라고전하고 한국이 금년봄부터 실험재배를 위해 1백60만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아리

봄불

사람이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기는 지금으로부터 50만년전인 북경원인들때로 알려지고있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는 이들 보다도 약90만년이 앞서는 1백40만년전의 사람들이 불을 사용했던 흔적을 미국과 영국및 캐나다의 3개국학자들이 공동조사끝에 밝혀냈다。

즉 동북아프리카 케냐의 바링고호 부근에서 원시시대의 석기와함께 발견된 불의 사용흔적은 화재、벼락、화산의 분화등과는 다른 야외의 모닥불임을 확인함으로써 인류가 불을 사용한 가장오랜 유적을 알아낸 셈이다。

이렇듯 사람과 불의 관계는 아득하고 또 불로하여 인류가 입은 혜택은 이루 헤아릴수 없으나、다른 한편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자심하여 모든일엔 득실이 언제나 상반하는 것임을 잘알수있다。

더우기 건조주의보가 영남지방일대에 내려져 있고 또 전국적으로 오랜 가뭄이 계속되어 날씨가 메마른 이때、달갑지않게도 불소식은 도처에서 이어지고있다。

엊그제 14일엔 이른 봄날씨가 화창한 가운데 경향에서 6건의화재가 발생、1명이 소사하고 경찰이 추산한 재산피해만 3억원이나 되었다。

흔히 화재라는복병은 겨울철을 노리고 사실상의 발생빈도가 삼동에 집중되는것이지마는 해동무렵의 따사롭을 틈탄 기습에도 십분의 대응이 없으면 허를 찔리게된다。80년도 한해에도 국내에서5천6백여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만、2백44명이 숨지고 부상 6백60명에 이르렀으며 재산손실 또한 1백22억6천만원이나 된다。

그런데 이와같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낸 화재의 원인인즉 86%가 부주의로 인한 것이니 지금의 건조주의보도 봄철화재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 마땅할 것이다。

불은 요즘의 새로운 학설처럼 1백40만년을 인류와 더불어 지내오며 문화에 공헌해온 사이이면서도 인간에게 조금의 방심이나 허가 있으면 금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횡포를 서슴지 않는다는 점、새삼 일깨우며 조심을 해야겠다。

KAWAI 피아노 인벤토리 대매출 기간 : 2월27일까지

⊙본사에서는 교민들을 위한 특별무이자 할부판매 (6개월한도내)를 단행했읍니다.

⊙은행대출알선이(1년-3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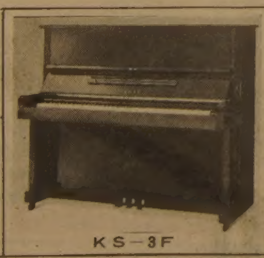
UPRIGHT 피아노

802—1

$3,995(Reg) $3,395(Spec)

802—M

$3,995(Reg) $3,395(Spec)



KS—3F

$4,595(Reg) $3,900(Sp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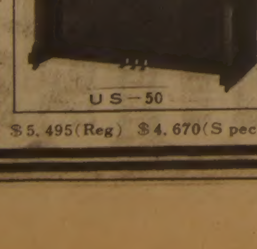
그랜드 피아노

KG—3

전자올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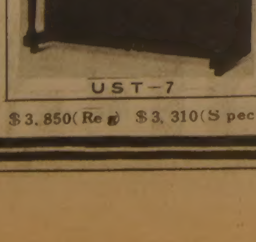
E—620

E—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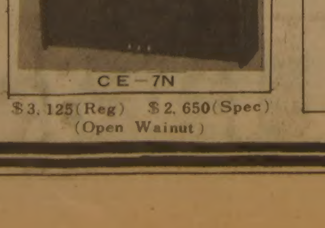
US—50

$5,495(Reg) $4,670(Sp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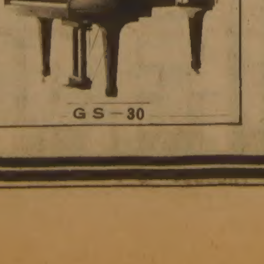
UST—7

$3,850(Reg) $3,310(Spec)



CE—7N

$3,125(Reg) $2,650(Spec)
(Open Walnut)



GS—30

대표 윤 호 섭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881—8211

HILL 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883—9407

秘錄 現代史発掘

5·16革命에서 維新前夜까지 <7>

共和黨 事前조직 內幕 ②

朴議長은 알았나…몰랐나…

5·16군사혁명이 일어난지 불과 7개월만에 착수된 新黨의 事前組織은 당시 朴正熙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

朴의장은 사전조직계획을 일찌감치 알고있었는가, 아니면 事後에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알았는가。여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있다。

다만 이러한 수수께끼와 관련된 숨은 사실하나가 뒤늦게 밝혀져 관심을 끈다。

「8·15計劃書」에 따라

즉 사전조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기간조직이 구비되고 간부核心당원에대한 비밀훈련도 끝날무렵인 62년8월 朴의장이 사전조직의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한낮의 무더위가 채 식지않은 어느날 저녁무렵 朴의장은 예의 검은 안경을 쓰고 金鍾泌부장의 안내를 받으며 당시 비밀교육장이던 서울 종로구 益善洞 뒷골목의 어느 저택에 들른 것이다。이집에는 사전조직을 주도해 온 간부들 40~50명이 모두 모여 있었다。방안은 기침소리 하나없이 조용했다。

朴의장이 자리를 잡자 고위간부인 L씨가 나가 정중하게 절을 한 뒤 교육상황과 계획에 관해 브리핑을 시작했다。소위 사전조직의 指針書인 「8·15計劃書」에 따라 어떤 사람들을 포섭했고 어떤 기구로 조직을 진행중이라는 中間보고가 브리핑의 전부였다。

약1시간동안에걸친 브리핑이 끝나자 무언가 한마디 할 것 같던 朴의장은 입을 다문채 아무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現況만 듣고 아무 말씀은 없었지만 표정은 만족한 반응이었다』는게 당시 現場에 있었던 간부들의얘기이다。

朴의장의 방문이 있기전 金부장은 여러차례 사전조직상황을 현장점검하기위해 다녀간것으로 알려졌다。

朴의장의 교육현장방문은 확실히 뜻밖의 일이었다。그렇다면 新黨의 사전조직과관련, 어떠한 구상을했겠는가。또 이新黨을 발판으로 계속 民政에 主役으로 참여할뜻을굳혔던 가등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해답을 줄 자료가 없다。

他機關 첫情報報告듣고 깜짝놀라

훈련끝날무렵엔 秘密教育場 들러

軍復歸만 생각하던 일부 最高委員들엔 큰충격

◇62년 新黨사전조직이 극비리에 추진되고있는동안 최고회의는 民政이양에 대비, 改憲작업에 피치를 올렸다。사진은 당시 改憲작업결과를 말하는 李周一위원장(중앙)과 李錫濟 吉在號최고위원들。

참신한人物은 누구인가

『그문제는 故人이된 본인이외에는 알수있는 사람이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것은 初期의 新黨조직작업에 착수했던 사람들은 어느 특정인을위해 정당을 만든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읍니다。

朴의장이나 金부장을 나중에 태우기위해 새정당을 만든다고 했더라면 아마 모두가 그만두고 손을뗐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 朴의장이 사전조직現場을 불시에 방문하자 우리들은『朴의장께서도 新黨작업을 알고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당초부터 이작업에 참여했던 K씨(前8·9代의원)의 목격談이다。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준비를 갖춘다』는 革命公約6항에 나타난「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은 누구를 가리킨것인가。또 新黨은 5·16擧事前부터 구상한것인가。이같은 의문에 대해서는 혁명주체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있다。

新黨추진의 실질적 리더인 L씨(7·9·10代의원)도 擧事前에 新黨을 만들생각은 하지않았다。

朴의장은 消極的默認說

新黨을 참신한 민간인 중심으로 결성하다보니 결과적으로 혁명공약에서 나타난「참신하고 양심적인정치인」과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朴의장과 新黨사전조직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당시의 여러가지 狀況으로 보아 朴의장이 혁명을 일으킨지 불과 7개월만에 民政참여를 위한 新黨조직을 구상, 지시한것으로 보는 견해는 적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朴의장의 적극적인 의사로 사전조직이 착수된 것은 아닌것 같다。『金부장중심으로 먼저 조직을 진행시키면서 수시로 브리핑을 하여 건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朴의장은 民政참여를 전제로하여 創黨을 사전조직하도록 적극적인지시를 하지는 않았읍니다。그분은 다만 金부장의 적극공세에 소극적으로 默認하는 그런 태도였지요』

당시 최고위원과 후에 共和黨의원을 지낸 다른 K씨는 당시 狀況을 이렇게 설명하고있다。

또 당시의 취재기자였던 A某씨는『그때 朴의장은 정권장악을 완전히 하지못한 상태여서 民政후의 장래를 구상할만한 여유나 겨를이 없었다』고 배경을 풀이했다。

방첩부대장겸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있던 K씨(8·9代의원)는 사전조직에 대한 정보보고를 했더니 朴의장은 깜짝 놀라면서『좀더 구체적인것을 알아서 보고하라고 하더라』고 전했다。이때가 6월께로 알려지고있다。이때까지 朴의장이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

K씨는『朴의장이나 우리 최고위원들은 모두 그일이 끝나면 軍으로 복귀한다는 순수한 결심에 조금도 변함이 없었는데 엉뚱하게 일부 몇몇이 民政에 참여하기 위해 당을 만든다는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당초 新黨의 사전조직을 위해 金鍾泌씨가 총책임자로 있는 某기관에서 파견된 7人들도 저마다 사전조직을 뒷바라지 하는일이 끝나면 軍으로 다시돌아갈 [illegible]고 회고하고있다。

創黨마치고 軍復歸생각

당시 최초의 7人의 한사람으로 62년1월부터 참여했던 K씨(8·9代의원)는『우리가 하는일은 그저 심부름하고 뒷바라지하는것이었고 각부서마다 책임자를데려다놓고 자리가 잡히면 軍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고 말하고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숨은 後見人으로서 일을할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들이 노출되면서 軍으로 돌아가기가 어렵게되어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다는것이다。

처음 소위「8·15계획서」를 실천하기위해 나온 某기관의 요원6명은 모두가 情報局출신이 아니라 여러局에서 차출된 사람이었다。

康誠元 洪大健 李明善씨는 2局(정보) 金永昫 崔鍾明씨는 5局(교육) 鄭智元씨는 관리실 소속이었다。

『당시 우리끼리는 모두 비슷한 연배여서 계급차가 약간 있었지만 만은 놓고 지낼 정도로 이런 임무를 맡기전부터 잘알고 있었지요。그러다가보니 사소한 심부름을 할만한 사람이 없어 똑똑하고 발빠른 사람을 하나 보내달라고 본부에 요청했었지요』

그래서 나온 사람이 당시 공군상사였던 李斗宇씨였다고 6人의하나인 K씨는 회고했다。

6人이 業務를 분담

당시 이들의 구체적인 업무分擔을 보면 기획은 관리실소속의 鄭智元, 조직은 말잘하고 붙임성이 좋은 康誠元, 사무를 관장하는 총무는 金永昫, 선전은 洪大健, 교육은 崔鍾明, 포섭대상자의 신원파악을 주로했던 조사분야는 李明善씨가 각각 맡았다。

6人중에는 책임자가 없었고 康씨가 가방을 들고 본부와 연락을 자주다녔는데 이들의 숨은 次上級役이라는 L씨(7·9·10代의원)였다고 한관계자는 밝혔다。

L씨는 당시 某기관의 第2人者로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이들이 하는 일을 조정 지시하고 보고를받아 金鍾泌부장에게 전했다。

◆組織原理

(一) 公共組織

①個人中心을 止揚한다。
②選擧를 통한腐敗를 방지한다。
③黨소속 國會議員이 본연의 활동을 할수있도록 制度的으로 보장한다。
④人物에 대한 忠誠을 지양하고 公益을 위해 忠誠토록 한다。

(二) 點組織

①派閥과 系譜를 배제한다。
②個體의 自立性을 확립하고 일체의 連繫는 黨의 機構를 통하도록한다。
③理念중심으로 結束한다。

(三) 核心組織

①選擧때와 平常時의 區別없는 계속적인 組織活動을 편다。
②一線黨員의 社會參與를 확대한다。
③계속적인 理念의 전파와 教育으로써 國民의 政治意識을 높인다。

(四) 領導權의 확립

①指導體系를 單一化한다。
②能力과 統率性을 확립한다。
③運營에대한 責任과 管理는 신속을 원칙으로한다。

(五) 汎國民的組織

①각選擧區의 利益보다 全國民적 福祉를 추구한다。
②各界各層을 망라한 基盤을 구축한다。
③民族共同의 目的을 追求한다。
④民族적 指導層을 형성한다。

道責끼리도 서로 모르게…秘密 點조직의 極致

유명作名家에 이름짓고

사전조직의 첫 據點으로 알려진 소위 카네기 홀의 2층사무실은 金永昫씨가 계약한것으로 흔히 알려진것처럼 본격적으로 사무실로 쓰여지지는 않았다고。며칠 안되어 제일전당포건물의 아늑한 사무실로 옮겼다。

『사무실이 비어있다고 해서 계약을했더니 방이 너무크고 책상이나 집기도 없어 도깨비라도 나올것같아 우리들끼리 서로 얼굴이나 맞대고 하는 장소로 밖에 쓰지못했다』고 K某씨는 당시 狀況을 설명했다。

혁명주체세력과 마찬가지로 新黨조직에 처음 나섰던 이들도 軍으로 되돌아간다면 당초의 결심과는달리 모두가 民政의 出帆을 전후해서 옷을 벗고 나온다。

특히 鄭智元, 康誠元씨는 당초軍에 있을 당시의 本名을 현재의이름으로 바꾸었는데 새 이름의 作名은 당시의 이름난 作名家 P某씨가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제일 전당포가 있는 건물로 사무실을옮겨 밤낮을 가리지않고「사람」을찾아 東奔西走했는데 그결과 3월말에는 新黨의前身인 再建同志會의 중앙기구를 發足시켰고 4월부터는 지방 조직에 착수했다。

여기서도 철저한 點조직의 방식이 적용됐것은 물론이다。

政黨경력없는 사람人選

『우선 각道별로 조직책을 선정하여 道責끼리도 서로알지못하게개별적으로 활동하게 했지요。道責은 지방의 信望있는 인사들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역시 點조직을 標榜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加入者이외에는 아는사람이 없었을것입니다』

당시 간여했던 G씨는 지방조직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방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人選기준을 과거 정당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술회하고있다。

각市道별로, 지구당별로 점차 地方조직을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事前조직에 참여한 인사들은 10월까지 1천명(市道20명, 지구당 6명)에 가까운 놀라운 숫적 증가를 보였다。

중앙은물론 지방요원(지구당사무국)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2元조직원리를 교육했다。

훗날 두고두고 공화당의 불씨가 됐던 2元조직, 즉 지구당위원장과 사무국의 분리원칙은 겉으로는 英國보수당운영에서 모방했다고하나 사실은 5·16직후 朴의장이 제창한 行政的 민주주의를 바탕으로하고있다。

【特別取材班】

白仁鐵 첫防禦 KO장식

OPBF J미들級, 2回 比크루즈 복부强打

프로복싱

◇…프로복싱 동양 태평양 권투연맹(OPBF)주니어미들급 챔피언 白仁鐵은14일 大田 충무 체육관서 벌어진 타이틀 첫 방어전서 필리핀의 노장 알베르토·크루즈를 2회 KO로 물리쳤다。이로써 白은 프로데뷔 이래 16전16연속 KO승을 거두었다。

白은 2회서 오른쪽 어퍼커트로 첫 녹다운을 얻은후 크루즈의 복부를 강타, 경기를 끝냈다。OPBF 등급10위의 크루즈는 쇠퇴기에 접어든 선수여서 白의 펀치력을 점검하기에는 미흡한 상대였다。

柳興錫、比토요곤에 KO勝

한편 프로복싱 한국라이트급2위 柳興錫은 같은날 문화체육관서 벌어진 막스 보이·토요곤(필리핀 등급 5위)과의 10회전 경기에서 2회2분14초만에 KO승을 거두었다。

니카라과의 아르게요 6回 TKO로 3次방어成功

◇…세계권투평의회(WBC) 라이트급 챔피언인 니카라과의 알렉시스·아르게요는 美보몬트(텍사스州)에서 벌어진 타이틀3차방어전에서 도전자인 제임즈·부심을 6회TKO로 제압했다。

아르게요는 5회전까지의 채점에서도 부심에게앞서있었다。

이로써 아르게요는 74승(60KO승) 4패를 기록했다。

WBA 크루저級 새챔피언 決定戰서 오카시오탄생

또한 푸에르토리코의 오스왈도·오카시오는13일밤 南阿共和國의요하네스버그에서 벌어진세계권투협회(WBA)크루저급챔피언결정전에서南阿共의로비·윌리엄즈에게 [illegible] 챔피언이됐다。

美스핑크스 6回 TKO거둬 2차방어

세계권투협회(WBA)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인 美國의 마이클·스핑크스는 13일 美國의 아틀랜틱시티에서 벌어진 타이틀전에서 도전자인 우간다의 무스타파·와사자를 6회 TKO로 물리치고 타이틀을 두번째 방어했다。

前세계헤비급 챔피언 레온·스핑크스의 동생인 마이클·스핑크스는 이날 승리로 19전 전승을 기록했다。【[illegible]=聯合】

◇동양주니어미들급타이틀 1차방어전에서 챔피언 白仁鐵이 도전자 필리핀 알베르토·크루즈에 강한 레프트 보디강타로 2회1분34초만에 KO승을 거두었다。【15日大田=聯合】

朴鍾學(유도)등 23명 상패

體育會、81年優秀선수 團體표창

대한체육회는 15일상오 체육회 10층 강당에서 81년도 우수선수 표창식을 가졌다。

이날 표창식에서 曺相鎬체육회장은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유도의 朴鍾學(24·유도대)과 배드민턴의 黃善愛(20·한체대)등 우수선수23명과 최우수단체로 뽑힌 永登浦工高 축구팀을비롯한 9개 우수단체에 각각 상패와 메달 트로피등을 전달했다。

이날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朴鍾學은 지난9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제12회 세계유도선수권대회 라이트급 금메달을 비롯, 국제대회에서 3번 입상했으며, 黃善愛는 지난해 3월 제71회 全英선수권대회와 스웨덴·日本·自由中國등에서 열린 4개국제대회 여자단식을 석권했다。

◇수상자명단

▲최우수선수=朴鍾學(유도대·유도) 黃善愛(한체대·배드민턴) ▲최우수단체=永登浦工高·축구 ▲우수선수=金福柱(동아대·육상) 千仁泰(포항수고·수영) 金春浩(명지대·테니스) 金憲秀(경북대) 朴範淳(공주사대·이상연식정구) 金烷(제일합섬·탁구) 金柱錫(동아대·사이클) 金東吉(전남체고·복싱) 方大淳(조폐공사·레슬링) 安智榮(현대·역도) 崔旭珍(경상대·씨름) 申度植(조치원고·검도) 朴英淑(한체대·궁도) 金惠英(육군·사격) 申昌武(대구보건전문대·승마) 康淳用(충북고·체조) 吳承順(경남모직·펜싱) 鄭讚(동아대·태권도) 羅雲燮(의정부고·스피드스케이팅) 趙載衛(경희중·피겨스케이팅) 朴炳魯(경희대·스키)

▲우수단체=東亞大(야구) 三千浦女中(농구) 慶北師大附高(배구) 全南體高여자팀(핸드볼) 東都中(럭비풋볼) 平澤女綜高(하키) 檀國大(조정) 延世大(아이스하키)

安海淑·黃男淑 석권

西日本탁구 單複式서 단식서도 우승·준우승

西日本탁구선수권대회에참가한 東亞建設의 安海淑과黃男淑은 13일 복식에서 우승한데 이어 14일 단식경기서도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 개인전을 석권했다고 선수단이 알려왔다。단식 결승에서 安海淑은 黃男淑에게 21-16, 14-21, 21-16으로 이겼다。

야마구찌(山口)縣 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준결승에서는 黃男淑이 日本국내챔피언 가와히가시(川東)를 2-0, 安海淑은 日本4위 야마시다(山下)를 2-1로 각각 물리쳤다。

존즈컵쟁탈 농구戰 6월5일 臺灣개최

自由中國농구협회는 제6회 존즈·컵쟁탈 국제남녀농구대회를 오는6월5일부터 7월5일까지 臺北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대한농구협회에 알려왔다。

여자대회는 6월5일부터 18일, 남자대회는 6월22일부터 7월5일까지 각각 열린다。

세계 태권도 出戰 선수단 18일 출국

오는24일부터 에콰도르에서 열리는 제5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한국대표단 결단식이 15일하오2시 대한체육회강당서 베풀어졌다。

이 자리서 金雲龍태권도협회장은 金科元단장에 단기를 수여하고『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명예와 실력을 발휘해줄것』을 당부했다。선수단은 18일하오 출국한다。

◇선수단

▲단장=金科元 ▲감독=姜善章 ▲섭외=黃春性 ▲코치=金仁守 ▲선수=安英澤 金基浩 全雄煥 金鍾基 張明三 朴吾成 朴千在 丁國鉉 金相天 河龍成 馬相賢

한국 538·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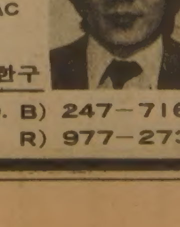
김명종 한약방
[illegible](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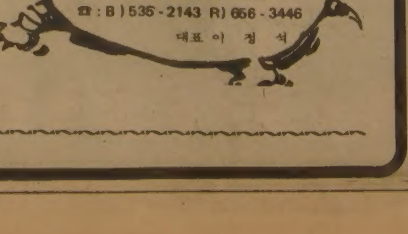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큇·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Eglinton Keele CHINA HOUSE Bloor Dufferin Bayview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피로연
— 예 약 환 영 —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목, 금, 토, 일 : 권순근 악단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Grant Brown
세일즈·매스터
이 한 구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釜山·濟州등 잇단火災

乾燥주의보속 1명死亡 3億피해

◇부산 昌善洞 직물도매상가에 불이나 12개점포를 태워 1억원의 피해를 냈다.

【地方綜合】嶺南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요일인 14일 하룻동안에 전국곳곳에서 6건의 불이나 1명이 숨지고 3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14일새벽 3시40분께 濟州市 一徒1洞 1301의6 姜京林씨(38)의 2층 건물에 세들어 있는 삼화당금은방(주인 金昌守·32)에서 불이나 금은방주인 金씨가 그자리에서 숨지고 姜씨집과 이웃 건물2채를 태워 1억3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날 불은 10평짜리 2층 목조건물을 삽시간에 태우고 이웃 梁錫喜씨(42)의 15평짜리 슬레이트건물과 與鍋순 할머니의 20평짜리 기와집을 태우고 긴급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시간만에 진화됐다.

▲부산국제시장과 붙어있는 昌善洞직물도매상가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12개 점포를불태워 1억원의 피해를내고 1시간20분만에진화됐다.

이날 상오8시4분께 부산 中區昌善洞3街23 2층목조 상가건물에서 불이나 1층의 우신직물상사등 8개점포와 한일상회등 2층의 4개점포등 모두 12개점포 1백30여평을 불태워 1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처음 불을 본 昌善洞3街20 한창사 종업원 金桂熙씨(30)에 따르면 상오8시4분께 양복지 도매상인 우신직물쪽에서 검은연기가 나면서 불길이 치솟아 국제시장 경비실에 연락했다는 것.

▲이날 새벽4시쯤 富川市 素砂洞201 동화가구(대표 사광하·59)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목조슬레이트 공장건물 1천2백평중 6백평과 가구류 30여점·기계등 4천5백여만원의 피해를 내고 2시간30분만인 상오6시35분께 진화됐다.

女性界 소식

女學士교실 마련 교육기간 3개월

대한여학사협회는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발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위해 「여학사교실」을 마련했다. 교육기간은 3월9일~5월27일, 장소는 아현동 중근당빌딩14층 대강당이다. 회비5만원. 문의전화 ⑬2378.

한국外交官피습 重態

武裝怪漢에 銃맞아 우간다서

◇피습당한 崔씨

아프리카 우간다에 근무하는 한국외교관이 무장강도들에게 총격을받고 중태에 빠졌다.

아프리카의 駐우간다 대사관에 근무중인 崔在根3등서기관(34)이 지난13일 하오5시(현지시간)께 우간다 수도인 캄팔라市주재 한국대사관저(대사 姜錫弘)로부터 시내로 향하던중 4명의 무장강도로부터 총격을받고 1번지병원에 응급가료중이라고 현지공관이 15일하오 외무부에 보고해왔다.

보고에 의하면 崔서기관은 이날우간다를 방문중이던 말라위주재 太和건설직원 1명과 함께시내로 향하던중 무장강도들로부터 피습을받아 우측다리와 좌측팔에 각각1발씩 관통상을입고 손목시계와 승용차를빼앗겼으며동승했던 太和건설직원은 현금 8백달러를 빼앗겼다는것이다.

외무부는 崔서기관이 전치 3개월의 관통상을 입었다고 밝히고 현지의 의료사정을 감안,英國으로·轉地치료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原子力발전소 9·10호기

韓·佛 2차設備구매계약에 서명

原子力發電所 9·10호기제 2차계통설비(터빈·발전기 및 보조기기) 구매계약이 15일 상오 韓電회의실에서 韓電과 프랑스 알스톰·아틀란틱社 대표자간에 서명됐다.

알스톰社는 原電9·10호기 2차계통 설비와 현장기술지원및 국산화기자재 구매지원을 담당하게 되는데 총계약금액은 美貨4억8천6백만달러(물가상승분포함)이다.

韓電은 2차 계통기기공급에 응찰한 알스톰社,스위스의 BBC,미국의 GH및GE,英國의 GEC,日本의 三菱등 5개국6개사중 지난해12월 알스톰社를 협상제1순위로 선정하고 협상을추진,이날 계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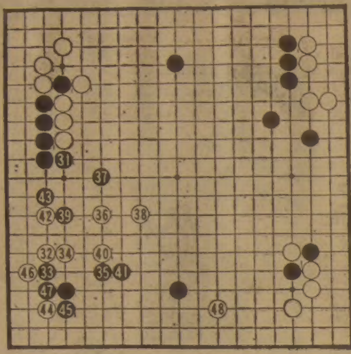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보석루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사파이어,진주,오팔. 536-1692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3局 第3譜 31~48 (각 5시간 덤 5집반)

白(7段)河燦錫 〈1勝1敗〉
黑(6段)姜哲民 〈0勝4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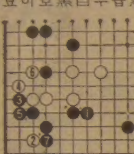


한상 주어진 시간을 물쓰듯하는 유끈기로 유명한 姜6단인데 이날은 유례없이 속하게 두고있다. 그럴 노릇이 대국시간인 상오10시에 무려 50분이나 지참을하여 2배나되는 100분을 공제한때문에 자칫 시간초과를 범할지도 모른다.

黑31까지에서 도합 2시간40분이경과했는데 白은 28분. 河7단은 여유있게 생각하더니(고작 3분가량이지만) 절대의곳인 白32를 힘차게 두들겨놓았다.

이에 대한 黑33, 35는 적극전법이다. 이리하여 불꽃튀기는 공방전인데 白36에서 40을 노린수가 경쾌무쌍,아마추어가 본받을만한 행마법이라 하겠다. 그리고 白38로 43이면 38의곳을 黑에 앗길까봐 꺼려한모양이다.

가벼운行馬와 좋은手順



일단黑39의 급소부터두고나서白40때黑41로 보강한것이 수순의묘이고 白42와 44가 연관성있는 수법. 白42로 직접 44에 뛰어드는 참고도의 白2는 黑이 먼저 3, 5로 젖혀잇고 白6때 7로 귀를 확보하면 白은 실리를 크게 잃는것이다.

白46에 선수해놓고 여러가지 않은점에 한축성이 엿보이고 그후 白48에 선하여 白이 재미있는 포석이라는 중론이다.

姜6단은 다음수를 20분이나소비한끝에결정했는데과연어떨까. 【一凡】

流星의 賦 <310>

李炳注作 李友範畵

虛實의 時間 ⑦

그해의 2월13일 조정에선 정변(政變)이 있었다. 세자책립(世子冊立) 문제로 정철이 파직되었다. 영의정에 이산해, 좌의정에 유성룡, 우의정에 이양원(李陽元)이 앉았다.

통신사가 서울에 돌아온것은 3월. 이욱고 참피스런 꼴이 현출되고 말았다. 역사는 다음과같이 기록한다.

복명하는 자리에서 정사 황윤길은

『수길의 안광은 날카롭고 담지(膽智) 또한 있는것 같았읍니다. 그리고 주변의 경황을 살피건대 반드시 우리들을 침략해올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하는 내용의 말을 했고, 부사 김성일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수길의 침략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의 눈은 쥐눈과 같으며 인품 또한 볼 품이 없읍니다. 한갓 용렬한 인물에 지나지 않으니 그 대언장어(大言壯語)에 현혹당할 필요가 없읍니다』

동인(東人)들은 김성일의 말이 옳다고 하고 서인(西人)들은 황윤길의 말을 옳다고 해서 조정의 의론은 분분했다. 사태를 냉정하게 판단하기에 앞서 당파근성(黨派根性)이 작용한 것이다. 그런데 허성은 동인에 속해 있는 처지이면서도

『정사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다』

고 황윤길의 의견을 지지했다.

김성일은 선위사 소서행장(宣慰使 小西行長)과 대마도주 종의지에게 대답한 서신 두장을 꺼내놓았다. 그 내용은, 어떤 이유로서도 명(明)나라를 칠 수 없다는 뜻을 극언(極言)한 것이었고 그문사(文辭)가 웅변이며 통쾌했다.

『이쯤이면 왜인들도 알아볼만 하겠다』

고 일컬으며 김성일을 칭찬하고 그를 당상관(堂上官)으로 승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팔도(八道)에 명령하여, 진행중인 방어준비를 일체 중단케 했다. 처들어오지도 않을 일본을 경계해서 민생(民生)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서였다.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내가 성일(誠一)에게 물어보았다. 당신의 말은 황사(黃使)의 말과 다른데 만일 병화(兵禍)가 있기라도 하면 어쩔 작정인가 하고. 그랬더니 성일의 답은 다음과 같았다. 난들 어찌 왜(倭)가 끝내 병화를 일으키지 않을것이라고 장담할 수야 있읍니까. 다만 황윤길의 말이 너무나 거창해서 그대로 두었다간 중앙과 지방이 공동(恐動)할까 보아 그렇게 해명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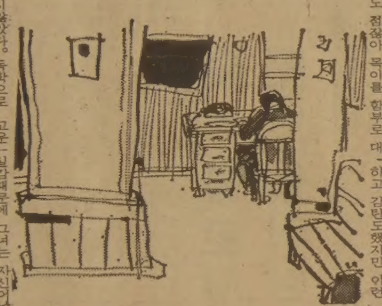
사실 김성일은 일본이 대거 침략하리라곤 믿지 않았다. 김성일이 총명한 탓으로 저지른 과오라고 할수 있었다. 김성일은 일본의 병란이 근 백년동안 계속되었는데 수길이 겨우 천하를 평정했다고 하나, 수길이 정사(政事)와 민심(民心)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성일은 수길을 그만한 총명은 있는 자라고 짚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다 황윤길의 겁만 보고 겁에 질린것 같은 태도에 반발을 느끼기도 했던 모양이다.

그랬는데 수길은 성일이 짚은 것처럼 총명한 인간이 아니었다. 바로 이점에 김성일의 오판(誤判)이 있었다. 당파근성도 크게 작용하고 보니 자연 그의 주장이 필요이상으로 격화되기도 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37>

朴婉緒作 金光培畵

숨바꼭질 ㉔



목이를 그 곳에 취직시켜 준, 이름을 밝히기를 싫어하는 어느 독지가란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라도 있었는지 모두 목이에게 친절했고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처음부터 시키지도 않았다. 그야말로 특별대우였다.

그녀의 주된 일은 그 학원의 실적을 알고싶어하는 학부모의 내방이나 전화문의에 최근 몇년동안 상승일로에있는 명문중학 입학률과 장안에서 소문난 강사진의 이름을 달달외어서 들려 주는 일과 수시로 입학을 원하는 재수생들에게 미리 비치해놓은 시험지로 시험을보게해서 최우수반, 우수반, 준우수반등으로 실력을 분류하는 일이었다.

그밖에 접촉하고 도와줄 사람은 그 곳 강사들인데 거의가 유능한 전직교사인 이들은 나이도 지긋하고 말씨도 점잖아 목이를 함부로 대하지않았다. 독학으로 고운 꿈을 키우고있는 소녀를 귀여워하고 격려해 주었다. 혼자서 공부하다 모르는 건 막힘없이 척척 가르쳐줄만한 실력자들만 모인 속에서 생활한다는 건 그녀의 지식에 대한 갈증뿐아니라 지적인 허영심까지도 만족시켜 줄만했다.

피곤한 강사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코피를 시켜마셨다. 그럴때마다 목이 몫까지 시켜서 이제 인바이다 시피한 코피를 다리꼬고 앉아 느긋한 기분으로 마실때면 이만하면 출세가? 하고 자족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늦은밤, 텅빈 7층건물 한귀퉁이 상담실의 소파를펴서 침대를만들고 누우면 높은천장이 출렁이는 환각과함께 그녀의꿈의 침실은 망망대해를 표류한 난파선의 선실이 되고말았다. 외로움을 참다못해 그녀는 밤마다 울었다.

『목아, 이제부터 넌 고아가 아냐. 한사람의 의젓한 사회인이 된 거야』

원장아버지가 목이를 떠나보내면서 대견한듯이 한 말이었다. 그러나 목이는 고아원을 떠나고나서 비로소 자신이 고아일뿐이라는걸 실감하고있었다.

영광학원에서 그녀는 「미스오」로 통했다. 이제 조금씩 낯이 익게된 아이들도 「미스오언니」라고 그녀를불렀다. 처음엔 그소리를 들을때마다 심한 이물감에 깜짝놀랐고, 미스오가 바로 자기라는걸, 깨닫고나선 이내 눈물이 핑돌곤했었다.

상실감과 고립감이 뼈에사무쳤다. 그녀가 잃었다고생각하는건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다. 「목아」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게 얼마나 큰 삶의 위안이었던가를 이제야 알것같았다. 그곳 사람들은 예뻐지고 세련돼간다고 놀리기도하고 감탄도했지만 이런 상실감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날로 비참해지고 못돼가는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원장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원장아버지는고아들을 공평하게 사랑했지만 목이는자기가 제일 사랑받고 있다고 믿고있었다. 「목아」라고부를때의 원장아버지의 목청은 독특했다. 마치 성까지 합쳐서 「오목아」라고 부르는것처럼 들렸고 그잡힐듯말듯미묘하게 함몰된 「오」소리를 자기만이 감지할수 있다는게 목이에게 커다란 기쁨과 자랑이 되었다.

아무도 원장아버지처럼 목이를 부르지 못했다. 또 아무도 목이처럼 원장아버지가 부르는 소리속에 살짝 감추어진 정다운 음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건 두사람만의 은밀하고 따뜻한 교감의 방법이었고 그녀가 희구하는 삶, 가정이라는 그 그지없이 멀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람의 방법이기도했다.

장학의 밤

SHOW · DINNER · DANCING

인사말씀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번영이 같이 오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안에서 보다 행복스러운 내일을 가져오기 위하여 잠못자고 뼈저리게 일하시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한인사회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보다큰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1세의 힘만으로는 제한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의 장학재단은 카나다의 큰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인사회가 하루속히 오게하기위하여, 우리 자녀를 자극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반면 우리들은 한국에서 정말 돈이 없어 공부못하는 어려운 학생들도 잊지않고 있읍니다. 이들을 위하여도 장학재단은 힘자라는대로 장학금을 보내고 있읍니다.

우리의 사업을 여러분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또한 장학기금을 모으는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저희들은 장학의 밤 행사를 마련하였읍니다. 여러분이 지불하시는 입장료는 비용을 제하고는 1센트까지 장학사업에 쓰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장학 사업을 돕는 마음으로 또 일하는 저이들을 격려하여 주시는 뜻으로 장학의 밤에 꼭 참여하여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읍니다.

이사장 구 상 회

연락처 :
789-7544 문 인 식
239-2193 강 공 선

"밤안개의 주인공 현미 특별출연"

노래와 코메디 —양 철

아라비아 춤 —PRINCESS NATOMA

쌍둥이 무용 —DUFFY BROTHERS

일시 : 1982년2월27일(토)오후6시30분
장소 : DOWNTOWN HOLIDAY INN(토론토시청뒤)
회비 : 1인당 $30(Ticket시내 각식품점판매)

주최 : 카나다한인장학재단

— 경품내역 —

●서울왕복비행기표	한국여행사
오팔금목걸이($650상당)	미도파백화점
벽시계($100상당)	영리무역
50 lb "국보" 백미2포	고려식품
COUPON($75)	NORTH YORK CHEV.
기념품($100상당)	스타미용실
한국일보 1년구독권($99상당)	한국일보사
전기믹서	동궁식당
DECORATED CLOCK	김흥랑
Cooking Pot set및 은쟁반($120상당)	Noor es Intrnational
민중신문영구구독권($150상당)	민중신문사
Cross Gold Pen($150상당)	연합상사
불로바 벽시계($130상당)	ROGER'S GARAGE
크리스탈 BOWL 1셋트	한인신용조합
PAN ASIA장미표 백미 50lb(5포대)	한국식품
골프스윙 DOCTOR 1셋트($50상당)	무나미 스포츠
Beverage set	전윤식
부리타니카 백과사전($1600상당)	신용목
양복기지($60상당)	이상남
벽시계($100상당)	미시사가AUTO COLLISION
Collector's Plate	조규혁종합보험
경품1점	ECOSYS가구점
래디오($100상당)	한일은행토론토지소
고급 화이버 글라스, 크로스 칸추리스키	브랜든스포츠
ALARM CLOCK($100상당)	아리랑식당
전기 Humidifier($150) Palmer's	에어콘디숀 김봉균
고급화장품 셋트($200)	로마노미용실
륙키산맥관광왕복 항공권1매	신세계여행사
장미적금($5,000) 첫지불액 $258.40	카나다외환은행
진주 귀걸이($200)	고려보석
백미 25 lb 5포	삼목, 서울, 한밭식품
	D. Y. IMPORTS
자동전기 Cooker	조병역

※접수되는 대로 추가발표

— 기증품내역 —

연예인 왕복비행기표	신의상사
연예인 왕복비행기표	ORIENTAL PALACE
장학기금 $100	황용현부동산
장학기금 $20	유환진 목사
장학기금 $300	실업인협회

5인조 한국인 밴드와기타 연예인 다수 찬조출연!

※ 당일수익금은 전액 장학기금으로 적립 합니다.

中共、20만명大肅淸 계획

1次、工業部 2백69명去勢
鄧小平、新革命개시를 宣言

【北京=13日UPI聯合】鄧小平중공부주석은 13일 2백69명의 관리를 은퇴시킴으로써 비대한 중앙관료기구를 축소하는「新革命」을 개시했다. 중공정부는 12일「이념적인 敵」, 부패관료, 임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늙은 관리에 대한 심각한 투쟁을 공식선언한 바있다.

文革때 浮上 노쇠·부패자 거의 逐出확실

◇鄧小平 中共부주석

그러나 부수상第一波는 이날 鄧의 캠페인을 묘사하는데 쓰고있는「숙청」이란 말을 부인하고 鄧이「또하나의 혁명」을 고려하고 있다고밝혔다.

한편 한 중공일간지는 第一波의 말을 인용,『鄧小平이 또하나의 혁명이라고 묘사한 중공정부기구의 능률화는 엄청난 과업』이라고보도했다.

중앙관료에 벤친 대규모숙청의 1차적인작업은 제3기계공업부소속 2백69명의 간부관료들을 은퇴시킨 것이었다.

제3기계공업부와 산하공장, 연구기관등에서 은퇴한 2백69명의 간부들은 고문 또는 은퇴자로서 제2·제3선에 물러나있게될 것이라고 中共通信은 밝혔다.

지난주 중공고등교육기관에서는 3백50명이상이 은퇴당했는데 이들은 곧 전국 각지역으로 보내져 중공권력구조에 도전할수 없게되었다.

中共통신은 위기가 완성하고 문화수준이 높은 30명이 2백69명의 은퇴자가 맡고있던 임무를 수행하게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관들은 지금까지 보도된 관료들의 은퇴는 더큰 규모의 권력구조재편을위한 초기단계일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외교관들은 鄧이 20만명의 중앙관료를 은퇴 또는 해고하고 부패와밀수에관련된 관리들은 재교육하거나 투옥할 것을 희망하는것으로 알고있다.

예를들어 鄧은 7개의 기계공업부를 1개부서로 통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권력투쟁은 몇명의 부수상을 해고하느냐이다.

현재 중공에는 외국에도 널리 알려진 외상을 겸한 黃華등 18명의 부수상이있다.

서방 외교관들은 鄧小平이 이번권력구조개편에서2명의 부수상직만 듀기를 바라고있는것으로 믿고있다.

鄧은 毛澤東시대의 잔재인 비능률적이고 부패한 관료의 제거를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이번 숙청운동은 정치적으로 과장된감이 있다.

그러나 鄧의 주변인물들은 이숙청운동이 정치적 이유때문인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라지않고있다.

한 서방외교관은 文化革命을 전후해서 공직에 진출한 대부분의 관료들이 이번숙직임을 정치적숙청으로 생각하고있다고 지적했다.

鄧記事 다시登場

【北京13日AP聯合】鄧小平중공부주석은 지난 1월12일이래 13일 처음으로 중공通信의 기사에 재등장했다.

北京의 신문들은 이날 그가 중공행정부의 능률화와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보도했다.

그러나 한공식대변인은 鄧이 지금 어디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중공통신과 人民日報는 이날 鄧이 군부에 개편을 위해 노력할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관측통들은 한달여만에 등장한 鄧의 행동개시 신호가 훈련의 형태를 띤것은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설 "現代化" 障碍요소 마지막 整風作業

중공의 鄧小平정권은 현대화정책을 밀기위한 마지막 체제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 중공 관료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중공당국은 애써「숙청작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행정기구의 축소개편을 통한「체제정비작업」인 동시에 정치적인 정풍작업일수 박에 없다.

鄧小平의 실용주의정권은 오래전부터 현대화정책 수행과정에서 장애가 되고있는 고령자·무능력자·부패분자·좌경분자를 축출한다는「4大整風」운동을 벌여왔다.

鄧小平정권은 80년8월 趙紫陽을 수상으로 앉히고 81년7월에는 胡耀邦을 黨주석으로 올려 본격적인 경제「실천주의 사단」의 골격을 갖췄으나 下部구조를 장악하지 못해 정책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毛澤東 死後 집권했던 華國鋒 당주석을 경제계획실패를 이유로 실각시키고 대세를 잡은 鄧小平정권으로서는 경제정책수행의 成敗가 정권의 생명과 직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

중공의 이번 체제정비작업의 촛점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갈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바로는 국무원의경우 국가기본건설委, 국가농업委, 국가에너지委, 기계공업委등 4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對外경제연락부, 외국투자관리委, 수출입관리委등 3개부서를 통합, 對外경제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현재 18명인 부수상을 2~3명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등 과감한 기구축소작업을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계급정년제를 도입, 고령관료들을 은퇴시켜 제2선, 제3선으로 돌릴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제1선은 黨서기처를, 제2선은 정치국과 黨중앙위, 제3선은 고문직을 의미한다.

鄧小平은 85년까지는 공직에서 은퇴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으며 최근에는 일상적인 업무에서 손을 떼고「제2선」으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鄧小平의「自退」전략은 고위직을 차지하고있는 많은 고령간부들에 압력을 주는것이다.

문제는 이에따른 반발이다. 아직 뚜렷한 반대움직임은 보이지않고 있지만 숙청작업이 확대되어 軍部로까지 번지게된다면 사태는 예측할수 없는 상황에 이를수도 있다.

현재 黨서열 7위인 文革派의 마지막 보루인 부주석 華國鋒이나 軍원로 葉劍英등에까지 이번 체제정비작업의 여파가 미칠지가 주목된다.

【朴永詰기자】

國防省관리 "蘇서 페르샤灣 공격하면 美、反擊대상에 北韓포함"

【워싱턴12日=曹淳昇특파원】소련이 페르시아만을 침공하면 소련블록의 수개취약지역을 반격하는 레이건 행정부 새전략에따라 북한도 그반격 대상지역에 포함될수 있을것이라고 美국방성의 한관리가 12일 말했다.

미국의 반격대상지역으로 국방성 관리들이 쿠바、베트남、리비아및 소련의 동부아시아지역을 꼽았다고 뉴욕타임즈지가 보도했으나 북한이 소련대리 세력이어서 소련동부아시아지역의 개념속에 포함될수있다고 이 국방성관리가 말했다.

다른 한국방성고위관리는 美83회계연도국방예산을 해외프레스센터에서 배경설명하는 자리에서 새 전략에 따른 미국반격지역문제에 대해 국방성이 지난수개월동안 광범하게 검토한것은 사실이나 그지역과 나라이름을 구체적으로들어 공개할수는 없다고 논평을 회피한바있다.

팀스피리트82 어제開幕 輸送艦 5척도 動員

팀스피리트 82훈련의 D데이인13일 일본 오끼나와주둔 美해병제9여단소속의 해병78명이 60톤의 각종장비와 함께 6대의 C130수송기에 분승、오끼나와 가데나공군기지를 떠나 이날낮경북醴泉과 浦項에 각각도착했다.

이번훈련에서 해외로부터 제일처음 공수된 이들은 미해병제3상륙부대(3MAF)의 제3정비지원대로 활약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 미군 해운관리 사령부는 미국본토와 태평양기지의 장비를 해상수송하기위해 코메트、머큐리、아메리칸·챔피언、사이그너스、베이、찰즈·라이크등 5대의 수송함을 동원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社會漫評

자! 여기 와 앉아서…

大入試補完策 5월까지 마련

文敎部 "大學別문젯점 資料수집

前期집중·本考査폐지·內申대도시不利·先시험 後지원등

문교부는 오는 5월말까지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鄭泰秀문교부차관은 13일 民正黨정책위文公분과 위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문교부는 각 대학별로 現行입시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자료를수집중이며 전문가들의 의견을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교부측이 보완을 서두르는 현행입시제도의 문제점으로는▲대다수 대학의 前期집중▲本考査폐지에 따른 대학재량권의 제한▲고교 內申성적의 일률적반영에 대한 대도시 수험생의 불만▲先시험 後지원에 따른 선택의 방황등 4가지로 지적되고있다.

日 마사아끼衆議員 全대통령、接見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13일상오 청와대에서 일본衆議院의 나까야마·마사아끼(中山正暉)외무위원장을 접견하고 환담했다.〈사진〉

이자리에는 李相翊韓日의원연맹간사장과 마에다(前田利一)駐韓일본대사가 배석했다.

새마을誠金기업인 10명에親書…격려

全斗煥 대통령은 13일 새마을성금을 기탁해온 韓一合纖의 金翰壽회장등 기업인10명에게 親書를 보내 치하격려했다. 새마을성금을 기탁해온 기업인들은다음과같다.

▲金翰壽韓一合纖회장=2억원 ▲金昇淵 한국화약그룹회장=1억원 ▲李運珩金山파이프사장=5천만원▲李洋球東洋시멘트사장=〃▲金仁得碧山그룹회장=〃▲具斗會 金星통신사장=3천만원 ▲趙德英 韓獨사장=2천만원▲李宗默 대한料食業중앙회회장=1천40만원▲高錫振 新和社사장=5백만원 ▲金相秀 大同공업사장=농기계 1백대 (2억4백만원상당)

3黨總務 내일會同

民正·民韓·국민당등 3黨 총무들은 15일 民韓黨당직개편이후 첫 공식접촉을갖고 국회운영 문제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林鍾基 民韓黨 신임총무는 13일『오는 15일 3黨총무가 오찬을 겸한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자리에서는 임시국회 소집문제를비롯한 전반적인 국회운영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것으로보인다.

民韓 週內 후속 人事

民韓黨은 주요黨職 개편을 단행한데 이어 이번週안으로 원내부총무단을 비롯 사무처 간부와 정책위의장 各分科위원장등에대한 부분적인 後續人事를 할것으로알려졌다.

黨의고위 소식통은 13일『黨職개편에 따른 후속인사는불가피 하다』고 밝히면서『폭은크지않으나 주요下位 당직들이 개편대상이 될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年內 通貨證券 3천억원 發行검토

정부는 시중에 풀려난돈이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금년중에 3천억원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할 계획이다.

13일 관계당국에의하면 지난해 연말자금과 구정등으로 돈을 많이 풀었고 1·14조치와 정부공사 조기발주등으로 계속 풀려나가고 있으나 이가운데 상당부분이 실물경제활동에 직결되지 않고 채권수요로 나타나는등 부동화조짐을 보입에따라 통화안정증권을 실제금리로 발행、일반에 매각함으로써 시중자금을 흡수할 계획이다.

통화안정 증권발행은 재정증권과 같이 단자및 종합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입찰에붙여 소화하고 이를 다시 일반에 매출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올들어 돈이 많이 풀린것은 구정자금수요가 주원인이고 1·14조치로 수입담보금해제 2천억원 수출금융단가인상 1천3백억원 정부공사조기발주 1천억원 농사자금조기방출 1천억원등 5천여억원이 풀려나가고 있다.

陸軍一般兵 지원可能

4월부터、國卒·高卒 나이未達者도

정부는 오는4월부터 징집연령이된 국교졸업자와 징집연령이 되지않은 고교졸업자가 육군일반병에 지원입대할수있도록하는「육군일반병지원제」를 실시할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학력이 국졸이하인 경우 징집대상에서 제외시켜왔으며 징집연령미달의 고교졸업자가 육군에 지원할경우 장기하사관이나 특수병에 한해서만 입대가가능토록 해왔다.

13일 관계당국에따르면 정부의 이같은방침은 국졸자가운데 군입대를 희망하는사람이 많고 고교졸업자가군대에 가려해도징집연령이될때까지 기다려야하는등불편을시정하기위해취해지는조치라는것.

한편 병무청 당국자는같은 육군일반병지원제 실시방안이 유휴인력남비를 막기위해 마련된것이며 이방안은오는15일 국회국방위의 보고를 거쳐 4월1일부터 시행될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구독신청은 533-2361

佛·印·스리랑카·나이제리아巡訪
盧外務、오늘 登程

盧信永외무장관은 프랑스、印度、스리랑카및 나이지리아등 4개국을 공식방문하기위해 14일하오 4시50분 KAL편으로 出國한다.

盧장관은 4개국 巡訪길에 印度의 뉴델리와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서 열리는 非同盟지역駐在 공관장회의를 주재한뒤 오는28일 귀국한다.

盧장관은 특히 21일부터 시작되는 프랑스방문기간중 프랑스와·미테랑 대통령과를 로드·셰이송外相등 프랑스정부지도자들과 일련의 요담을 갖고 양국頂上회담개최와 韓半島의 평화定着을위한 프랑스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는등 양국간의 공동관심사를 협의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盧外務

盧장관의 訪佛은 韓佛修交이후 정부의 외무장관으로는 첫 공식방문이라는점에서 지난해5월 社會黨내각을 출범시킨 프랑스정부와 새로운관계증진을 이루는 중요한계기가 될것으로 분석되고있다.

盧장관의 순방일정은 다음과같다.

▲14일=서울출발、홍콩착(비공식방문) ▲16일=자예·워던 스리랑카 대통령예방、하미드外相과 회담 ▲18~20일=간디印度수상예방(19일)、라오外相과회담후 亞·中東지역 공관장회의주재(27개지역 공관장참석) ▲22일=미테랑 佛대통령예방후 셰이송 外相과회담 ▲23일=조베르 佛대외무역상과 회담 ▲24~26일=샤가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예방(25일)、아우드 外相과 회담(24일)、阿·中南美지역 공관장회의주재(22개지역 공관장참석) ▲28일=귀국

統一심포지엄成果 民正 年例化방침

民正黨은 12일 폐막된 黨주최 통일문제심포지엄의 성과가 크다고 판단、통일방안모색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할방침이다.

黨의 고위간부는 13일『내년부터 열리는 국제학술토론대회에는 한국에 비판적인외국학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反韓的인 활동을하는 한국인학자들에게도 門戶를 개방하여 우리나라의 참모습을 직접 보게하겠다』고 말했다.

北 對話여부곧擇一 워커대사 美서會見

【콜럼비아(美사우드캐롤라이나州)14日AP=聯合】리처드·워커주한미대사는 북한이 남침을 감행할것인지 아니면 한국정부를 합법정부로 인정、대화를 할것인지 여부를 곧 결정해야만 할것이라고 말했다.

워커대사는 14일 콜럼비아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또 한국경제가 지난해 7.3%의 성장을 이룩했으며 인플레도 약12%로 떨어졌다고 지적、한국경제는 70년대의 일시적인 난조를 딛고 일어나 다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커대사는 또 지난1월 全斗煥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헌법제정제의에 대해 북한은 호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全대통령의 제의가『성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維石 어제22周忌

維石趙炳玉선생의 22주기추도식이 15일상오 서울水踰里故人의 묘소에서 엄수됐다.

이날 추도식에는 故人의장남인 趙尹衡씨(前국회의원)와 차남인 趙舜衡의원(무소속)등 유족과 친지들이 참석했다.

地平線

아무리「백년해로」를 맹세한 부부지만 여자는 자칫 과부가 되기 십상이다. 생리적으로 여자가 오래 살게돼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6.4세가 많은 69.1세다(78~79년도). 그러나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남녀의 수명차이는 없어질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미국·조지타운대학교 의대에스텔·래미라는 여자박사다.▼래미박사에 의하면 남자의 죽음을 재촉하는 범인은 남성호르몬이다. 이것은 피의 응결이나 동맥의 수축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상동맥질환을 일으키는데 큰구실을 한다. 그런데 쥐의 수컷에 아스피린과 비슷한 인도메타신을 썼더니 이런 병이 없이 오래 살더라는 것이다. 사람의 남자들도 아스피린을 하루 한알쯤 먹는게 좋을 것이라고 그는 제안하고 있다.▼의학의 발달은 과부를 없애는데 그치지않는다. 아마도 범죄라는 말을없앨수 있을지 모른다. 미국의 남캘리포니아대학 사노프·메드닉박사에 의하면『범죄적 성격은 유전되는것』이라고한다. 쌍둥이연구를 해본 결과 그런 결론을 얻었다고 지난 1월 미국과학진흥협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물론 그는 환경이 유전적요소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말을 잊지않고있다.▼범죄적 성격이 유전된다면 애초에 이런 성격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게 지금의 의학기술이다.『시험관 아기』를 만드는 기술이다. 간단히 말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자를 꺼내、유리접시위서 아버지의 정자와 섞어、시험관속에서 배양한다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넣어주는 것이다. 알려진 것처럼 그본바닥은 영국이다.▼시험관아기를 만드는데는 대충 4천달러(2백84만원)가 든다고 한다. 병원에 따라서는 2배까지 들수도 있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세계에 24명이 있다. 그러나 본바닥 영국에서 시험관아기를 규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고있다 한다. 이러다간 태아가 흰쥐처럼 실험대상이 될수도 있고、개미떼처럼 규칙화된 인간을 대량 생산할수도 있다는 비판때문이다.▼조지타운대학의 르로이·월터즈박사는 이기술이 아기를 갖지못한 부부에게 빛을 주는 것이라고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멀지않아 유전자를 멋대로 선택하는 시대가 올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천재를 만들고 유전성 질환이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이기술이 잘못 이용될수도 있다는 경고다. 다양한 인간이 모여서 비로소 창조와 발전이 있다는걸 잊지말라는 경고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선 명
●생명보험
●연금제도
●교육보험
●그룹보험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R. R. S. P
922-3111 (B)
791-8196 (R)

매혹의 저음가수
배 성 : 특별출연
기 간 : 2월18일부터
매주 목, 금, 토, 일
오후8시30분부터
히트곡 : 사나이부르스
망 향
기적소리만
향 수
무정한 여인등 20여곡

거 구 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파티 예약환영
영업시간 :
평일 오전11시~새벽2시
일요일 오전11시~새벽1시
밴 드 :
목, 금, 토, 일 저녁8시30분~2시까지
권순근과 그의 악단
5 BETHRIDGE RD.
742-1618

절대貧困層 370만

KDI推計 全人口의 9.8% 占有

최저 生計費도 未達

大都市 1人當 2만1백61원·中小 1만8천3백원

20年간 名目GNP 百50배·實質 5배 成長했는데

생각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많다. 4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과 이에따른 고도성장으로 우리나라 GNP규모는 지난 20년간 名目 1백50배, 실질 5배 가량이나 늘어났지만 소득수준이 밑바닥의 最低生計費에도 미달하는 절대 貧困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0%에 가깝다. 13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한국개발 연구원(KDI) 추계방식에따른 80년 우리나라 절대빈곤인구는 전체인구의 9·8%, 약 3백70만명에 이르고 家口비율로는 10·8%가 절대 빈곤가구에 해당한다.

이들절대빈곤계층은 1인당 한달평균 소득이 대도시 2만1백61원, 中小도시 1만8천3백43원, 郡이하시골 지역은 1만6천5백25원에미달, 기본생계자체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가난한 계층이다.

한편 保社部가 정부의생활보호대상가구 선정을위해 마련한 기준에의한 81년절대빈곤인구는 전체인구의8·7% 3백28만명에이르고 家口數는 81만4천家口가 절대빈곤계층으로 정부의 생활보호대상으로 지정되고 있다.

保社部의 절대빈곤인구기준은 1인당 월평균소득이 6대도시의 경우 3만3천원 中小도시 2만9천원, 郡이하 시골지역 2만5천원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고 田畓을 비롯한 財産額도 대도시 2백만원, 중소도시 1백75만원(田畓9백평이하) 시골 1백50만원의 판잣집이나 초가삼간을 간신히 지닌 정도이하의 계층이다.

KDI의 절대빈곤인구선정기준은 지난 73년추계된지역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그동안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 산출한것이다.

保社部기준에따른 우리나라 절대빈곤인구상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6대도시는 25만3천가구에 1백7만명, 중소도시는 11만2천가구에 46만명, 농촌은 44만9천가구에 1백75만명으로 절대빈곤인구비중이 도시의 6·7% 6·8%보다 농촌이 11·8%로 크게 높다.

한편 지난80년중의 가구별 소득 구조를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서울의 中産層생활을 영위할수있는 수준인 월평균 1백만원이상소득의 가구수는 전체가구의 1%에불과하고 5만원미만의 찌들게 가난한 가구수가 6·1%, 25만원이하는 66%, 50만원이하가 거의대부분인 92·4%의 비중을 차지했다.

波、지식인 彈壓강화

신문販禁·언론인등 11명체포

【바르샤바·빈12日 AP=聯】폴란드계엄당국은 지난 수일동안 학자와 언론인 17명을 체포하고 신문판매를 금지하는등 지식인 탄압을 강화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서방에 입수된 보도들은 폴란드계엄당국은 지난주 바르샤바、그다니스크、토닌、브롤라프등지에서 16명의 학자가체포됐으며 지난80년8월의 폴란드자유노조탄생에관한 보도로 이탈리아의 라이방송으로부터 보도상을 받은 방송여기자 얄리나·얀코프스카도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波여객기 西獨망명 조종사家族등 9명

【베를린12日UPI聯=聯】폴란드여객기조종사 1명이 12일 폴란드국영 로트항공사 소속 안토노프26국내선여객기를몰고 서독으로 탈출, 미군기지에 착륙한후 가족·친척 6명 및 다른2명의 탑승자와함께 서독정부에 망명을 요청했다고 서독당국이 이날 밝혔다.

蘇 美곡물大量買入 今週들어 두번째로

【워싱턴12日路=聯】소련은 금주들어 두번째로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곡물을 매입했다고 美농무성이 12일 밝혔다.

美농무성은 미국의 민간곡물수출상사들이 현시장 가격으로 약 4천1백만달러에 이르는 총35만톤의 옥수수를소련에 판매했음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原油價 계속 下落

供給과잉…사우디輕質 30·55弗公示

【로테르담12日路=聯】油價동향을 알수있는 지표인 현물원유시세가 공급과잉으로 구매자들이 별관심을 보이지않음에 따라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시장소식통들이 12일 발표했다.

한거래업자는 가장 고가품인 사우디아라비아産 경질유의 경우 금주시세가 공시계약가인 배럴당34달러보다 훨씬 낮은 30·5달러로 공시됐다면서 이는 4주전의 34·30달러와 지난주의 32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거래업자들은 금주중 영국국영석유공사(BNOC)가 北海석유값을 배럴당1·50달러인하키로한 결정이 아랍산유국들에 계속 유가인하압력을 가하고있다고 말하고 北海석유값은 앞으로몇주 동안도 1·50달러가 더 내리게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유및 석유제품시세는 세계적 공급과잉이 해소될조짐이 없는데다 값이 계속 하락하고있어 단기간내에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것으로 많은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아세안巡訪 李鍾玉 곳곳서 亡身만당해

【東京13日=宋李彬특파원】북괴의 수상 李鍾玉은 3일부터 11일까지 9일동안 인도네시아를비롯, 태국 말레이지아등 아세안국가를방문, 순방외교를 벌였으나 망신만 당한채 되돌아왔다.

李鍾玉의 아세안 방문은 全斗煥대통령의 아세안순방외교를 약화시키려는 逆風공세로서 그목적이 위장평화공세와 경제유대강화에 있었다.

25명의 대표단을이끌고 처음으로 아세안순방길에 오른 李鍾玉은 비동맹회원국인 인도네시아에게 대량의 석유수출을 요청했으나 공급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태국에서는 북한의 통상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해줄것을 요청했으나 이것역시 보기좋게 거절당했다.

◆바웬사鄕里방문許可할듯

폴란드계엄당국은 연금상태에 놓여있는 自由勞組지도자 레흐·바웬사에게 딸의영세식에 참석하도록 그의고향인 그다니스크로의 여행을 허가할것이라고 12일 교회소식통이 말했다. 【바르샤바=펜】

메아리

長壽의 조건은 생활환경이 가장 중요한것 같다. 한밤에 孤獨 깨면 째각 째각하는 옆집의 시계소리가 들릴만큼 조용한 일본의 어느 長壽마을 환경이라고 한다. 이 장수촌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보리를 섞어 먹으며 그들의 수명은 일생동안 먹은 야채량과 비례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소음이 건강과 수명의 무서운 敵이라는 결론이다.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리는 우리 현실에선 이런 牧歌的인 삶은 꿈도 꿀수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반갑게도 2천년에 가면 6~7세가량 더 늘어 남자 69세 여자는 76세로 길게 연장된다는것이 경제기획원의 조사분석 결과다.

평균수명이 늘어남과 함께 우리는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큰 관심이 쏠리게 된다. 오래 살되 건강하게 살아 가는것이 인간의 공통적인 바람이라고 하겠다. 이 소망은 특히 도시인의 경우 스포츠생활화로 연결될수 밖에 없다. 조기축구나 조깅 또는 등산, 배드민턴 같은 것은 취미와 스포츠를 이어준 현대인의 건강관리법이다. 그렇지만 시간에 쫓기는 도시인에겐 건강관리를 할수 있는 공간마저 너무 비좁아 쉽게 찾아갈 공원이나 공설운동장이 드물다.

국가적으로 스포츠를 장려하고있는 東獨엔 주거지마다 반드시 스포츠시설이 아쉬움없이 갖춰져있다. 인구 50만의 도시면 1천여개의 대·소운동장이 마련되고 1백80여개의 실내외풀이 있다한다.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한 東獨의 저력이 여기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나라에서 스포츠의 생활화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고있는것이다.

국민體力章制

문교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민 체력장제」를 권장해간다고한다. 국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인구의 저변화대를 위해서다. 앞으로 세부계획이 확정되어야 그 윤곽을 알수있겠지만 여기 선행할일은 체력증진을 위한 「與件의 시급한 조성」이다.

점심시간이나 휴일을 이용,몸을 쉽게 풀수 있는 마당이 없고선 체력장제는 큰 實效를 기대하기 어려울것 같다. 그리고 체력장은 건강증진의 촉진제로 쓰여야지 획일적으로 이를 강행하거나 어떤 특전,특혜가 여기에따라서는 안될줄 안다.

秘錄 現代史発掘

5·16革命에서 維新前夜까지 <6>

共和黨 事前조직波動 ①

카네기홀7人의 極秘工作

保安위해 僞裝사무실 市內곳곳에

포섭대상選定 個別的인 署名공세

「再建동지회 入會」→「東洋化學理事임명」이 入黨절차

5·16이 일어난지 반년이지난뒤인 62년1월4일낮. 軍政 정치활동금지, 극심한 경제난등으로 침울한 분위기를 한층 짙게 하려는지 간간이 눈발까지 흩날렸다.

당시 대학생들이 즐겨찾던 서울 忠武路1가 음악실 카네기홀건물앞에 검은 지프 2대가 나란히섰다. 차에서 내린 7人의 30代청년은 주위를 한번씩 둘러본후 서류봉투를 옆구리에낀채 건물2층으로 올라갔다. 이날로 카네기홀에 사무실을차린 이들은 이곳저곳에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가하면 열심히 준비한 서류와 투툼한名簿를 뒤적였다. 이곳을 드나드는 私服차림의 7人의 굳게다문 입이나 하루에도 몇번씩 왔다갔다하는 검은 지프의 動態로 미루어보아 어떤 특수한 계획이나 工作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게 틀림없었다.

훗날 제3공화국이 출범한후에도 두고두고 말썽과 疑惑과 是非를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民主共和黨의 事前組織작업이 행동으로 옮겨진순간이다.

한국政黨史上 최초로 과학적이고 근대적인 정당을 지향하겠다고나선 공화당은 민주정당의 속성인 정치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의 자연스러운 결집이아니라 마치 야당의 비난대로 「비밀工作이나 作戰」을 하듯 極秘裏에 착수된 것이다.

이로부터 1년뒤 정치활동이 재개된 63년1월10일 당시 군사혁명정부의 2人者라고 할수있는 金鍾泌중앙정보부장이 중심이되어 만든 新黨(假稱 再建黨)의 첫발기모임이 서울光化門 三永빌딩에서 열렸다.

『4·19로 비롯되어 5·16으로 승화된 혁명이념을 계승하여 혁명과업을 민주주의적 질서하에 수행해야할 新黨출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에따라 과거의 정당派閥에 구애됨이 없이 인물중심으로 성실성에 중점을 두고 포섭범위를 확대하여 汎국민적인 정당을 지향키로한다』

主役인 金鍾泌씨를비롯, 尹日善 金貞烈 李元淳 金東煥 金元全 金在淳 朴賢淑 尹冑榮 曺應天 徐泰源씨등은 국민에게 新黨의 발기취지를 밝혔다.

비밀리에 추진해온 「地下新黨」이 1년만에 처음으로 어렴풋이나마 베일을벗은 것이다.

당시 정치활동이 허용되자 일반국민들은 舊정치 舊정치인을 舊態와 舊惡으로 여지없이 매도한 혁명세력들이 과연 어떠한 인물들이 어떤모습의 정치와 정당을 보여줄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있었다. 이즈음 新黨1號의 浮上은 그야말로 최대의 주목거리였다.

그러나 혁명주체들에의한 新黨추진소문은 오래전부터 나돌았기때문에 이날의 發起가 통상적인 創黨의 첫준비라고 믿는사람은 별로없었다.

발기모임에 참석한 대부분의 인사도 훗날 자신들이 참여한 新黨이라는 怪物(?)의 前歷이 그렇게 길고 복잡하게 이뤄졌는지 몰랐다고 술회했다.

당시 金鍾泌 중앙정보부장이 중심이되어 극비리에 추진한 事前조직의 말썽은 주체세력 내부에서는 『혁명동지들을 배신하고 獨走했다』는 반발로 內紛이 일었고 野黨으로부터는 『정치활동이 금지된 戒嚴下에서 스스로 법을어기고 세력을 「규합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와함께 事前조직과 관련, 자금조달을 위한 이른바 4大疑惑 사건은 훗날 공화당의 難産과 暴風을 自招했고 이처럼 복잡한 경로로 胎動된 공화당은 제3공화국의 幕이 내려질때까지 하루도 편안한날이없이 깊숙이 內在된 反目과 대립으로 줄곧 흔들리게 된다.

이제 얘기를 다시 사전조직초기로 돌려본다. 카네기 홀의 7人은 당시 중앙정보부 정보국(2局) 소속의 육군소령4명과 대위2명, 공군장교1명등이었다.

康誠元(당시 中情연구실행정관) 鄭智元씨(당시 同 관리실장) 등을 비롯하여 李斗雨 崔鍾明 洪大鍵등 육군장교들과 吳모씨라는 공군장교등 7人은 우선 포섭대상후보의 명부 작성부터 시작했다. (康씨는국회의원을 지낸뒤 현재 水原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고 鄭씨는 캐나다로 이민, 그곳에서 神學大를 나와 현재목자로 있고 李씨는 국영기업체 감사, 崔씨는 昌原工團 이사장, 洪씨는 京畿新聞 사장을 지냈다)

이들은 內閣사무처의 공무원명부, 文敎部의 전국교수 교사명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명부, 保社部의 사회단체 간부명부, 언론인명부등을 바삐게 뒤적거렸다.

官界, 언론, 종교, 법조, 교육, 사회사업등 각계의 그럴싸한 인물들을 新黨에 참여시키기위해 찾아내려한 것이었다. 이작업 결과 우선 1차로 50여명의 명단이 작성되었다.

人選기준은 무엇보다도 과거 정치에 손댄 경험이 없는 참신한 사람으로 주위의 信望을 받고있고 유능해야한다는 것등이었다.

『계엄하이기때문에 保安을 지키기는 비교적 쉬운일이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모두 발을 묶어놓고 먼저 新黨을 조직한다는 飮泊과 넘 때문에 비밀유지에 유달리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었다』고 당시의 한 관계자(K씨)는 말하고있다.

비밀유지-그것때문에 「事前조직」의 據點은 한자리에 오래 머물수없었고 조직작업도 당사자만 알게하는 소위 點조직의 방식을 취하지않을수 없었다.

카네기홀에서 포섭대상후보 인선작업을 대강끝내고 다음단계로 사람을 찾아나서는일이 시작되면서 1월하순께 사무실을 종로2가 으슥한 뒷골목의 제일전당포빌딩 2·3층으로 옮겼다. 保安을 위해 「東洋化學株式會社」란 간판을 달았다. 「카네기 홀의 7人」들이 옮겨간 것은 물론이다. 康誠元 鄭智元씨가 여전히 책임자 노릇을 했는데 당시의 한관계자는 『鄭씨는 기획, 康씨는 조직을 각각 맡았는데 「上部」에 보고 연락하는일은 주로 鄭씨가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중앙정보부의 당시 金鍾泌부장으로부터 받아오는 지시에따라 조직활동을 하는것이 「東洋化學株式會社」의 업무내용이었다.

첫포섭工作은 金鍾泌씨가 직접 나섰다.

포섭대상의 친지나 交友관계를통해 5·16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이나 時局觀같은것을 수소문하여 性分을 간접적으로 파악한뒤 金씨가 직접 만나 설득하는 형식이었다.

이때 참여한 사람들이 徐仁錫(당시 뉴욕 타임즈 서울특파원) 李浩範(당시 국민대학강사) 黃性模(서울大교수) 李用男씨 (당시 대학강사) 등이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비밀을 지키고 조직의 규율에 따르겠다는 서약과 함께 「再建同志會」 入會書에 서명하고 「東洋化學」의 이사로 임명되었다.

이들로 조직의 기본골격이 구성되면서 다른 하나의 據點을 中區北倉洞에 있는 濟東빌딩에마련했다.

「接見室」이란 이름이 붙여진 이곳은 포섭대상자들을만나 마지막 심사와 설득을 하는곳이었다.

黃性模 徐仁錫 康誠元 鄭智元씨등이 주로 이곳에서 포섭활동을했다. 茶房이나 기타 장소에서 일단 접촉된 포섭대상자는 검은 지프편으로 「한사람씩」 이곳에 와서 설득을 당하는데 그분위기는 強壓的인 요소가 많았다고 전해지고있다.

「接見室」에서는 길면 서너시간까지 時局을 토론하고난뒤 「再建同志會」 가입서약서에 날인케하는 半強制的인 방법이 公式化되어있었다.

共和黨의 事前조직是非와 後遺症은 創黨후에도 두고두고 꼬리를물어 黨에 風波를 일으켰다. 사진은 63년 공화당창당후 어느날 午餐을들며 談笑나누는 혁명주체들. (左)로부터 李鍾根 吳學鎭 張東雲 金鍾泌씨.

◇「東洋化學株式會社」란 위장간판을달고 共和黨의 사전조직이 착수되었던 종로2가의 당시 제일전당포건물. 지금은 「보청기」란 간판이 붙어있는 이건물의 2,3층서 비밀리에 黨員포섭工作이진행됐다.

"民政으로 가는길 革命하기보다 더 어려웠다"

그서약서에는 물론 同志會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비밀에 붙인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接見과정에서 끝내 설득 당하지 않고 加入을 거부한 사람중에는 비밀유지에 대한 強迫관념때문에 아예 시골로 내려가버리거나 해외로 떠난 사람도 있었다.

이른바 「點조직」이란 방식을 철저히 적용했다.

중앙정보부에 「對外問題研究所」란 브레인·트러스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대학교수들을 포섭할때도 이와 비슷한 半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지않을수 없었다고 당시에 관계했던 K씨(前共和黨의원)는 전하고있다.

이렇게 接見室을 거쳐 포섭된 사람들은 2월말이되자 30명에 가까왔고 3월말까지는 약70명에 이르렀는데 끝내거부태도를 고집한 사람은 5~6명선.

申光淳(당시 民議院의장비서관) 蘇斗永(당시 京鄕新聞논설위원)朴東斐(당시증권거래소이사장서리) 張龍씨(당시 京鄕新聞 조사부장)등이 이때에 포섭된 인물들.

이러한 點조직에 의한 細胞분열은 기구의확대와 아울러 보안을 위한 사무실의 分家를 불가피하게만들었다.

3월까지만 해도 「東洋化學주식회사」 출신의 기본세포들로 구성된 人事委員會란것 이외에는 이렇다할 기구가 없었지만 3월말 조직이 불어나자 관리조직 조사부로 나누어 분야별로 본격적인 創黨작업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부서별로 사무실을 따로마련한것은 물론이다.

이때부터 당시 중앙정보부 行政次長이던 李永根씨(前7·9·10代의원)가 金鍾泌부장의 命을 받아 再建同志會조직을 총지휘하고 나섰다.

『조국近代化를 위해 현대정당을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계엄이 풀린뒤 부터 출발하면 너무 늦다는판단이 섰지요. 「사전조직」이란 執權層측에서 누릴수있는 하나의 프리미엄이 아닙니까. 點조직도 공산당식이니해서 욕을 먹었지만 비밀리에 하려니까 별수 없었지요』

李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혁명은 쉬워도 軍政에서 民政으로 넘기는 일은 정말 어려운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부서별 據點分散계획에 따라 康誠元씨를 책임자로한 조직부의 黃性模 李用男씨등 20여명의 요원들은 제일전당포 맞은편에 있는 빌딩으로 옮겼고 徐仁錫 張龍 李東榮 蘇斗永 孫禧植씨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부는 乙支路2가의 빌딩에 사무실을 차렸다.

鄭智元씨를 책임자로하여 朴東斐 金昌權 李浩範 李允榮씨등 20여명으로 구성된 관리부는 제일전당포 위층에 그대로 남았다.

【特別取材班】

공 고

대한체육회 82년도 임원및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임 원

88년도 올림픽준비위원장 : 심 재 환
회 장 : 이 병 권
부 회 장 : 이기훈 · 강준남
사무총장 : 배 용 문
기획실장겸
사무차장 : 이 건 영
국내부장 : 유 용 근
국제부장 : 황 재 필
운영부장 : 김상욱 · 김명환
홍보부장 : 이을윤 · 김정숙
섭외부장 : 서 춘 원
관리부장 : 서 인 현
경기부장 : 박 원 모
훈련부장 : 최 남 축
부녀체육부장 : 김 용 순
건강상담
위 원 회 : DR. 최동영(훼밀리 닥터)

이 사

함의연, 천영기, 유용근, 김동영, 고광남, 이호석, 신우원, 고성호, 조용철, 김용기, 박주삼, 박남희, 박종철, 이인식, 원종성, 이영민, 송종남, 최이락, 조충원, 이한영, 원재훈, 임경진, 김홍랑, 하영화, 서정길, 장영채, 김문랑, 성용창, 정용필, 이영현, 정영모, 박종수, 이경태, 이상철, 차자윤, 박 남, 김종호, 이준규, 이용구, 강준남, 이기훈, 배용문, 차선겸, 박경택, 황재필, 최동주, 심태섭, 원장호, 김만구, 장추신, 변의섭, 이대환, 김용섭, 장기철, 조용덕, 김호석, 심재환, 백경락, 정길수. (무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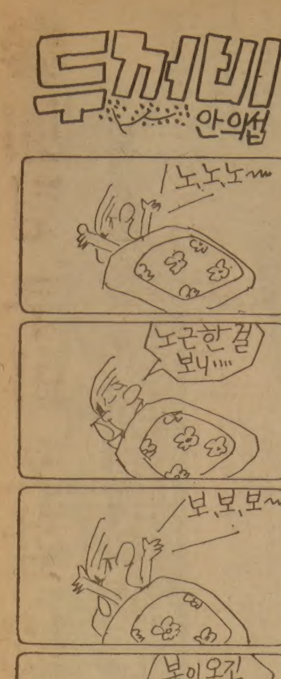
산하단체

야구협회 : 김 문 랑
유도협회 : 성 용 창
볼링협회 : 정 용 필
태권도협회 : 서 정 길
아이스하키협회 : 이영현
탁구협회 : 정 영 모
축구협회 : 임 경 진
테니스협회 : 이 건 영
사격협회 : 백 경 락

첫 이사회 공고 및 해단식

때 : 3월5일(금) 하오6시 이사회
곳 : 크린톤·하우스
3월6일(토) 하오6시(해단식)

대한체육회 카나다지부 회장 이 병 권



哨所警官 권총빼앗겨

怪漢이 유인, 야구방망이로 치고

서울 檢問강화…차량밀려 出勤지각소동

검문소전경대원이 괴한에게 유인돼 야구방망이로 뒷머리를 맞고 4·5구경권총 1정과 실탄7발을빼앗겼다。

13일 상오6시10분께 서울 江南경찰서 廉谷검문소에서 근무중이던 전경 李常哲수경(25)이 호남말씨에 흰운화를신은 1백70㎝가량의 20대청년으로부터「인근 九龍山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청년을 따라 4백m가량 떨어진 九龍山기슭으로 올라갔다가 이청년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아실신했다。

한참후 李수경이 깨어보니 허리에 차고있던 권총(총번 2087964)과 실탄이 없어졌다는 것。

李수경은 머리가 7㎝가량 찢어지는 전치 4주의 중상을입었다。

경찰은 시내전역에 갑호비상을 내리고 內谷파출소에수사본부(본부장 李康年·江南경찰서장)를 설치,무장경찰등 7백여명을 동원해 良才·廉谷·內谷洞일원에 대해 집중수색하고 城南으로 통하는 도로등의 검문검색에나섰다。

경찰은 이날상오7시께 범행현장에서 10여m떨어진 예비군 벙커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하늘색트레이닝과 방울이 달린 흰색빵모자를 수거, 감식의뢰했다。

경찰은 또 같은 시각에 트레이닝차림의 청년2명이 사건현장 동남쪽인 內谷洞 샘마을쪽으로 가는것을 보았다는 주민 吳모군(18)의 신고에 따라 범인이 2명 이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경찰은 이날상오 출근길에 시내로 통하는 검문소 마다 모든 차량에 대해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바람에 차량이 밀려 많은 시민들이 지각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 사파이어·진주·오팔
536-1692

10人乘택시 業界·시민들 拒否반응

交通部、올해부터 大都市운행 發表에

◇금년중에 서울. 부산등 대도시에 투입될 예정인 10인승 합승택시와같은모형.

合乘해 交通難해결한다지만

混雜유발·業界赤字 부채질

10인승 합승택시를 서울·부산등 대도시에서 새로 운영케 하겠다는 교통부 발표가 있자 기존 운수업계에서는 반대의견을 보이고있고 이용자인 시민들의 반응도 탐탁치않다。교통난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않고 오히려 기존질서를 더 흔드는 요소를 추가할것 같다는 예상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교통부는 지난4일 금년도 주요시책의 하나로 대도시의 러시아워때 승차난을 해소하고 택시합승요금 시비를 없애기위해 올해안에 10인승 합승택시를 운행시키겠다고 발표했었다。

교통부발표에 따르면 10인승 합승택시의요금은 현행택시요금보다 싸고 직행좌석버스보다는약간 비싼요금으로 책정하고 운행구간은 아파트단지·역·터미널·공항등 비교적 교통인구가 많은지역에 배치하여 같은방향의 합승승객을 수송하고 운영은 택시회사에 배정,맡길계획이다。

그러나 통금해제이후 손님이 없어 적자운영하는 회사가 생기고있는 택시업계나 직행좌석및 시내버스업계에서는 이같은 10인승합승택시가 생길경우 승객을빼겨 수입이크게 줄어들것이 확실해 일제히 거부반응을 보이고있으며 시민들은 지하철공사등으로 붐비고있는 현실에서 대형택시를 투입한다는것은 교통혼잡을 한층 부채질하는결과를 빚을것이라고 말하고있다。

특히 차체가비슷한 직행좌석버스업체들은 현재출퇴근시간에만 만원이고 대낮에는 빈차로 운행되고있는 실정인데 10인승합승택시가 나오면 직행좌석버스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것이틀림없다며 교통부당국이 업계의현실을 무시하고 자주 차종만 다양화시키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대했다。

10인승합승택시는 운영상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우선 출퇴근시간에는 승객이 많을것으로 예상되지만 낮시간에는 거의 빈차로 운행될것으로 보여 유류비등운영경비의 낭비가 예상된다。

또 운행구간을 지정, 노선을 정기운행시킬 것인지 출퇴근시간외에는 자유운행할 것인지, 장거리승객과 중간승차승객과의 요금차이를 어떻게 정할지등이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그리고 손님이없을경우 장기대기하는 폐단과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에 장기정차해있을경우 차량의 혼잡도를 유발할우려도 많다。

서울시 택시조합 기획부장 金仁基씨는『러시아워의 승차난해소와 시민들의 택시합승요금부담을 덜어준다는 당국의입장은 이해하지만 택시업계가 타격을입게되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아 자칫하면 콜택시처럼 실패작이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택시회사인 裕豊상운관리부장 金連棟씨는『서울의 지하철공사로 운전사들이 종전에 하루5백㎞뛰던것을 요즘 4백㎞밖에 못뛰고있고 통금해제후 운전사들의 수입이크게 줄어들고 있는상태』라면서『앞으로 운전사들의 생계에도 타격을주게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서울시버스조합기획부장 林誠君씨는『마이크로버스를 25인승에서 37인승으로 중형화해서 러시아워시간에 집중투입한다고 해놓고 또다시 새로운차종을 운행시키는 것은 이해가안간다」고 지적했다。

空港~미도파간의 직행좌석버스회사인 金浦교통 총무부장 尹吉源씨는외국처럼관광객을 상대로운영하거나 가족또는 단체모임들이 야유회때 택시2대이상을 불러 타고 가는것보다는 편리한것일도 있을것』이라고말했다。

【林承茂기자】

週5일授業 건의안

"내년 國校부터실시 擴大"

국민당 國會제출

국민당은 週5日制 수업을 국민학교는 83년부터 전반적으로 우선 시행하며 기타 각급학교는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의「각급학교 週5일제 수업건의안」을 金永光의원등 소속의원 25명전원의 이름으로 13일 상오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당은 이날 건의안제안이유에서『현 교육제도는 교육자의 심리적, 체력적 부담을 가중시켜왔고 과중한 행정지원업무와 함께 교육의 중요요소인 교사들의 質的향상에 항상 制動을 거는 작용을 하여온것이 사실」이라고 지적, 『이제 교육의 본질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선진제국에서 시행하고있는 週5일制 수업을 未來지향적 견지에서 우리 교육계에서도 대담하게 도입, 이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가 3位1體가 되어 교육의 主體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32年만에 劇的상봉한 父子

1시간뒤 輪禍…重傷

32년간 헤어졌던 父子가 만난지 1시간만에 함께교통사고를 당해 상봉의 기쁨도 채 나누지도 못하고 입원생활을 하고있다。

지난10일밤10시30분께 충북忠州-水安堡국도에서 姜泰元씨(35·상업·서울江西區禾谷洞391의14)일가족이탄 포니 승용차가 마주오던 8톤 덤프트럭과 충돌,姜씨와 姜씨의 아버지 允点씨(64)가 모두 중상을 입고 서울大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2대독자인 姜씨는 3살때 가출한 아버지와 소식이 끊겨 32년간을 헤어져 살아왔는데 지난해12월중순께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聞慶에 살고있다는 우연한 소식을 듣고 계속 수소문한 끝에 한물상에서 일하고있는 사실을 확인, 지난10일 부랴부랴 승용차를 세내어 어머니 朴씨와부인、3남매등 일가족을 데리고 聞慶을 찾아가 이날밤9시30분께 극적인 상봉을 할수있었다。

반가움에 못이겨 당장 아버지를 모시고 상경길을 재촉하다 변을 당한 姜씨는 지난74년결혼한후 76년에 論山에서 상경, 운전사등으로 일하다 현재는 조그마한 철공소를 스스로 경영하고있다。

前照燈 상향조정 일제 團束令

치안본부는 13일 야간에 도심지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헤드라이트)을 하향상태로 운행해야하는데도 일부 차량들이 상향한채 운행함으로써 야간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고요인이 되고 있음을 중시,이같은 야간전조등 상향운행차량을 집중단속토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특히 서울 釜山등 전국 6대도시의 도심지에서 사이카 경찰백차 교통경찰관을 교차로 횡단보도등에 배치, 전조등 상향운행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며 고속도로에서의 헤드라이트 조작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편다。

적발되는 운전자는 일반도로에서는 1만원, 고속도로에서는 2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통고처분을 받게된다。

小說에 共産理論 延大生 징역3년

서울형사지법 崔秉錫판사는 13일 延世大 신학대생 朴永昌군(22·신학과4년 휴학)에 대한 반공법등 위반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朴군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

朴군은 지난해 8월「무림파천환」이란 무협소설을 집필하면서 공산주의이론을 삽입, 2천권을 제작해 판매했고 80년3월에는 延世大신학회회원2명과함께 반정부 대자보를 만들어 교내에 붙인 혐의로 구속됐었다。

도박판덮쳐 現金가로채 派出所長등 拘束

서울시경은 13일 永登浦경찰서 汝矣島파출소 소장 杜元均경위(44)와 梁鎭昌순경(33)등 2명을 직무유기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崔程鎔경장(30)과 李東一순경(27)을 같은혐의로 입건하는한편 李海榮순경(39)을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梁순경과달아난李순경등은지난달30일하오10시30분께 112 도박신고를받고 서울永登浦區 汝矣島洞 체육공원관리사무소 지하실을덮쳐 도박을 하고있던 永登浦구청 건설관리과 직원 鄭淸秀씨(38)등 공무원 5명과 구경을 하고있던 朴昌浩씨(36·상업·서울東大門區面牧4洞715의2)등4명을 연행하면서 판돈24만원과 구경하고있던 朴씨소유의 60만원등 모두 84만원을 압수했다。

그러나 이들은이같은사실을 상급기관인 永登浦 경찰서에는『도박현장을덮쳤으나 아무도없었다』고 허위보고하고 31일상오 연행된 사람들을 훈방하고 현금은가로챘다는것。 이들은 돈을돌려달라는 피의자들의 항의가 뒤따르자 지난2일 영수증을받고 압수한 84만원을 돌려주었다가 지난5일 자체감사에서적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한편永登浦구청도 도박 공무원 5명을 모두 파면조치했다。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연속극, 가요, 문학, 영화, 전설…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454 BLOOR ST. W.
536-1692

胎兒에게 財産贈與 못한다

41년財産받은 胎兒、大法서 敗訴

母親 代理인정한 原審파기

"쌍방행위…胎兒는 能力없다"

아버지가 뱃속의 태아에게 재산을 증여(贈與)할수 있는가。이경우「태아는 수증(受贈)능력이 없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이색판결이 나왔다。그러나 현행민법이 제정된 58년이전에 이루어진「증여」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58년이후의 경우는 어떨까。두가지학설이 팽팽히맞서 새판례라도 구해야될 모양이다。

대법원민사부(주심 李會昌대법원판사)는 13일 金孝元씨(경북 浦項市 龍興洞)가 친형인 金熹元씨(大邱市中區 西城路)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상고심공판에서『이사건 증여행위가 있던 당시에 시행되던 의용민법이나 구관습으로 보아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할 법적근거가없다」고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大邱지법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형제간에 소송이 붙은 이사건은 원고 孝元씨가 5형제의 막내고 피고 熹元씨는 장남, 이들형제의 아버지 金聖徹씨는 지난41년 자신소유의 1천9백여평의땅을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던 孝元씨를 포함한 5형제에게 5분의1 지분씩 균등분할해 증여하고 각자에게 등기를 해주지못한채 사망했다。

이후 장남 熹元씨가 막내지분등을 자신명의로 상속등기를 해버렸고 이제 장년이된 孝元씨가 아버지에게서증여받은 자신몫을 요구했다가 이에응하지않자 소송을냈던것。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구법상 태아의 수증능력을인정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외에도『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계약으로서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하므로 태아에 대한 증여에 있어서도 태아의「수증행위」가 필요한것」이라고했다。

따라서 이사건의 경우 태아였던 원고 孝元씨는 수증자로서의 승낙이 불가능했던것이고 그것은 결국 증여의 법적효력이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원심은『태아도 그 어머니가 대리하면「수증능력」이 있다고본다』면서『형은 동생몫인 5분의1지분을 돌려주라』고 원고 孝元씨의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이소송은 아버지金씨가 단순한「증여」의 형식이 아니고「상속」이나 유증(遺贈)에 의한 증여방법을 썼더라면 분쟁이 생기지않았을 케이스여서 흥미롭다。

우리법은 물론 권리능력이 있는 주체로서 자연인과법인만을 규정하고있어 태아가권리능력이 없는것은 당연한일이다。그러나 현행민법은 예외로써 태아의 권리능력으로 상속권、유증(遺贈)에 대한 수증권、손해배상청구권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유증』은 유언으로 남기고 죽는것이므로 상속의일종이되나『증여』는 살아 있을때 행해지는 쌍방행위이기때문에 문제가 까다로와지는셈。

現行法上 학설對立…舊民法선 權利없어

그러나 태아에게 상속권 유증에 대한 수증권,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등 제한된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도『진정으로 인정하느냐, 또는 법률상 간주하느냐』에 따라 학설이 갈린다。그러니「단순증여」의 경우(58년이후의 것이라면)는 더 판단이 복잡해질것은 당연하다。

구법하에서 대법원이 제한된 권리능력을 태아에게 인정할때의 판례가 택한것은「정지조건설」이란 학설에 근거한다。태아일 당시엔 상속권등의 제한된 권리능력일망정 없으나 살아서 출생할경우, 문제된 사건의 시기에 출생했던것처럼 법률상 간주한다는것。

이때문에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점을 지적,『제한된 권리능력이라도 태아일당시에는 없으므로 대리인도 있을수없다』면서『어머니가 대리한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한원심을파기한것이다。

현행민법하에서는 앞에 지적한「정지조건설」과「해지조건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해지조건설이란 상속권등 제한된 경우엔 태아일당시 이미 권리능력이 있고 다만 죽어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이 소멸한다는 주장이다。이경우엔 증여에 대해 어머니가 대리한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는셈。이러한 케이스때 현행 민법하에서는 어떤 판례가 가능할지 궁금하다。

【崔奎植기자】

어린이 溺死급증

12일하루 6명死亡

【華城·居昌=聯】해빙기를 맞아 얼음이 녹으면서 저수지에서 놀던 어린이들의 익사사고가 잇달아 12일에도 경기도華城과 경남居昌에서 얼음지치기를 하던 어린이등 6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이날 하오3시40분께 경남居昌郡加祚面 一釜里 목동부락앞 저수지에서 얼음지치기를 하던 이마을 李판용씨(35)의 장남 圭進군(5)장녀 선희양(4)남매、柳재철씨(31)의 2남 섭복군(5)등 3명의어린이와 이들을 구하려던 諸두를씨(30·경기도南楊州郡渼金面水石里44의15)등 4명이 물에빠져 숨졌다。

이들 어린이 3명은 이날 저수지에서 세발자전거를타고 얼음을 지치던중 갑자기 얼음이 꺼지는 바람에 물에 빠졌으며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諸씨가 이들을 구하기위해 뛰어들었다가 함께 변을당했다。

또 이날 하오 3시20분께 경기도華城郡飛鳳面紫安1里 속칭 신비기저수지에서 썰매를타던 이마을에 사는 韓연수씨의 아들 상일군(12·청용국교5년)과 韓인수씨의 아들 상익군(13·청용국교6년)등 2명의 어린이가 얼음이 꺼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다。

佛信徒 현대식 法服

曹溪宗、불교改信운동

○…불교계에 새로운 법복(法服)이 등장했다。<사진>

불교曹溪宗전국신도회는13일 東國大에서 우리나라 최근의 재가신도(在家信徒)전법사(傳法師)제도를 창설하고 대부분이 대학교수인 72명의 재가신도들에게 전법사및전교사(傳敎師)임명장을주었다。

○…임명장 수여와함께새로 마련한 법복은 회사복과 비슷한 검은색복장으로 가슴부분에는 교계(敎會)를 표시한 법륜장(法輪章)을 새겼다。

○…신도들을 중심으로한 불교포교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전국신도회(회장 朴完一)가「불교개신운동」의 일환으로 마련한 전법사제도에 의해 최초로 전법사및전교사 임명을 받은 재가신도72명가운데에는 徐燉珏 李箕永 洪庭植 韓相範 金知見 鄭柄朝 金慶萬 金哲 朴光榮교수등 유명학자들이 망라돼있다。

터널에 30代變死體

【堤川=聯】12일상오10시30분께 충북단양郡 大崗面龍夫院3里 죽령터널안에서 조성원씨(33·강원 鐵原郡 葛末邑 新鐵原里2)가 머리가깨지고 다리가 잘린채 숨져있는것을 철길을 순찰중이던 선로원金호중씨(46)가 발견, 경찰에신고했다。

당신의 운명을 말해드립니다

(손금 카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드림

●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시는 당신께 꼭히 도움이 되어드릴것을 약속합니다.
● 인생을 살아가는데는 어느분이든 예외없이 충고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 한번와 보세요! 초능력적인 힘을 보실것입니다.
● 예약은 필요없읍니다..

PRIVATE AND CONFIDENTIAL READINGS

291 AUGUSTA AVE
921-0552 7일 오픈 9시~저녁9시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 각종국수 전문 —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 532-0602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연속극, 문학영화, 전설…

비디오

VIDEO··VHS.BETA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시간~3시간)
전설의 고향 - 하니, 3종지도, 정승골 대감, 조강지처, 우는바위
TV문학관 - 역마, 배따라기, 청산대, 무진기행, 산상에 서다, 삼포로 가는길, 형제, 배밭꽃필 무렵등….
영화 - 육군사관학교, 낙도의 무지개, 칼과 이슬, 전우가 남긴 한마디, 다정다한, 백삼룡의 일생, 고교얄개전, 모험대 소년
코메디 - 웃으면 복이와요, 코메디 출동, 특소대작전, 김희갑 전집.
쇼 - 영11, 쇼2000, 100분쇼, 쇼쇼쇼, 이미자전집, 최희준전집, 젊음의 행진, 가요싸롱, 흘러간 노래모음, 싱글벙글, 5천만의 대행진등…50여편.
수사극 - 간첩채포 일화, (얼어붙은 강, 여울의 소리, 고향이 부르는 소리), 수사반장, 형사 외 7편
사극 - 암행어사, 포도대장, 대명, 각각 10여편
민속 - 삼도대항전, 한국민속경연대회, 전국민속대항전, 푸른 조국, 정자및 하늘아래
일요드라마 - 소망, 부부, 한국의 미, 알뜰가족등 10여편
기타 - 인간가족, 사랑의 계절6편, 제1공화국 10여편, 동심초, 국군의날 기념,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전(광주제일고 : 선린상고)
경연대회 - 제5회 대한민국 연극제 당선작 "추모", 제11회 전국노래자랑 춘천편
어린이용 - 우주 대작전, 꿈나라, 모험소년, 15소년표류기, 죽엽의 쵸스, 정이의 세계써커스, 화이팅 우주소년, 우리들의 광장, 만화동산, 왕게시대, 호랑이 선생, 마징가, 인지공주등 50여편
한국말 외화 - 닥터지바고, 세미체라롤, 죽음의 쵸스, 집없는 아이, 서양의 무법자, 전쟁과 애욕, 벤사인, 이소룡의 전설, 피서지에서 생긴일, 록키, 벤·후라워, 7인의 신부, 바람의 복수, OK목장의 결투, 소문난 형사, 라튜·다팅스, 천하장사, 수리작전, 에르린 휘기탄출, 다이 헌터등 40여편. 모두 230여편의 프로그램과, 매월 20여편의 뉴 테잎이 반입될 예정입니다.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536-1692
SUN-MI GRAPHIC STUDIO 531-6430 921-5903
454A BLOOR ST.W. TORONTO MIDOPA 31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 주 내에서 가장큰 가죽제품 스토어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음
192 SPADINA AVE.
☎: 368-4215, 368-0114

參加팀 쿠바포함 12국확정

서울世界야구대회 66게임對戰表 내달 技術委서

13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아마추어 야구연맹 (AINBA) 집행위원회는 9월4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참가국을 80년 東京대회 우승팀인 쿠바, 주최국한국, 그리고 각 대륙을 대표한 10개국등 12개국으로 확정지었다.

라운드·로빈으로 진행될 대회의 총66게임 대전일정은 3월15~16일 서울에서 열리는 AINBA 기술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우승국결정은 공동수위2팀일 경우 결승전을, 3~4팀일경우 추첨에 의해 준결승, 결승전을 갖도록했다.

집행위원회는 또 아마·프로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토로의 IOC헌장을 토대로 프로팀과 계약했다하더라도 계약금을 정식으로 지급받거나 프로경기에 공식출전하기 직전까지는 아마추어자격을 인정한다고 결의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논란이 일었던 崔東原은 아마추어로 9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자격을 인정받게 됐다.

AINBA 집행위원회는 그밖에 로버트·스미트회장, 부르노·베네크 제1부회장등이 사마란치 IOC위원장, 金溶植 88서울 올림픽조직위원장, 曺相鎬대한올림픽위원장등에게 야구종목의 올림픽채택에 관한 협의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검토했다.

야구는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의 시범 경기종목으로 채택되어 東京선수권대회 4強인 쿠바, 한국, 日本, 美國이 올림픽기간중 LA 다저구장에서 라운드·로빈 경기를 갖도록 되어있다.

이날 집행위원회에는 스미드회장 (미국) 베네크 제1부회장(이탈리아)金鍾洛 아시아지역 부회장 (한국) 등 15명이 참석했다.

AINBA 집행위원회는 금년5월15일부터 30일까지 파나마에서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를, 83년 美國에서 국제청소년초청대회를 열기로했다.

다음 집행위원회는 9월1일, 총회는 9월2·3일 서울에서 열리게된다.

◇제27회세계야구선수권대회참가국 (12개국)

▲주최국=한국
▲전회우승국=쿠바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중남미지역=베네수엘라, 멕시코, 콜롬비아
▲유럽=네덜란드, 이탈리아
▲아시아=일본, 자유중국
▲대양주=호주
◇후보국가=①도미니카②파나마③브라질④벨기에

◇신라호텔 다이내스티 홀에서 열린 국제아마야구연맹 (AINBA) 집행위원회.

金喆鎬 방어전연기

4월25일에 大田서 갖기로

프로복싱 WBC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金喆鎬(21)는 당초 3월하순으로 예정했던 타이틀 5차방어전을, 1개월가량 연기, 오는 4월25일 大田에서 前챔피언인 라파엘·오로노 (베네수엘라)와 타이틀 매치를 벌이기로 했다. 5차방어전 연기를 결정한것은 격전을 치른 金에게 피로를 회복할 시간을 주어 무리없이 방어전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권투계의 권고에따라 취해졌다.

술레이만會長 保釋

【멕시코시티12日AP=聯】고대유물불법소장및 해외밀반출기도혐의로 지난9일 체포됐던 호세·술레이만 WBC (세계권투평의회) 회장이 1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프로복싱 韓—比戰 柳興錫對 막스보이

프로복싱 한국라이트급 2위 柳興錫 (해태체) 은 14일 하오 문화체육관서 필리핀의 막스보이·토요곤 (동급5위) 과 10회전을 벌인다.

프로야구 드래프트 5개구단 13명뽑아

각 프로구단의 부족선수보강을위한 드래프트가 13일한국야구위원회에서 실시돼 5개구단이 13명의 선수를 뽑았다. 1백11명의 대상선수를 놓고 실시된 이날 드래프트에서 롯데 자이언츠는 서울출신의 투수 房基萬 (한화), 李振雨 (상은) 등 가장많은 4명을 보강했다. 三星라이온즈는 曺圭植 (제일은투수) 등 3명을, 해태 타이거즈는 洪熙燮 (전대포수) 金容晩 (농협내야수) 2명을, 三美 슈퍼스타즈는 柳濟龍 (상은외야수) 辛鉉碩 (포철외야수) 2명을 뽑아 부족한 포지션을 보충했다. 각 구단은 이들선수에 대한 계약의 우선권을 갖게된다.

한편 MBC는 兪大成 (포철외야수) 金重根 (성대내야수) 등2명, 롯데는 郭東燮 (고대내야수) 金在相 (한일외야수) 林楨勉 (농협 내야수) 등 3명의 연고지역내선수들에 대한 계약유보를 신청했다.

세계선수권 파견 태권도대표結團式

오는2월24일 에콰도르에서열리는제5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파견, 한국대표선수단 결단식이 15일하오2시 대한체육회강당에서 거행된다. 선수단은 18일 출발한다.

늙어도 입맛不變

★美醫協誌 81명조사발표

사람이 늙으면 입맛도 달라진다는 통설과는 달리 노화에 따른 미각기능의 감퇴는 측정될정도이기는해도 실은 짠맛, 매운맛에 주로 영향을 미칠뿐이며 달콤한맛과 신맛에는 별관계가 없다고 美의학협회지의 한 보고서는 23세부터 88세까지 남녀를 대상으로한 81명의 노화연구소와 치과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발표, 인간의 노화에 따른 미각기능의 감퇴는 측정될정도이기는해도 한편은 아니며 특히 짠맛·신맛과 매운맛은 떨어지나 단맛에 대한 감각기능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않는다고 강조.【시카고=UPI】

美術애호가 모집

유럽 8개國硏修

한국 예능지도자 연수회는 유럽8개국을 일주하며 미술관·박물관등 고적을 답사하고 파리미술대학강좌를 듣는 미술애호가해외연수를 마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가톨릭歌謠大賞, 金추기경이 施賞

작사 宋昌植씨 작곡 李賢燮씨

「가나다라」를 작사한 가수 宋昌植씨 (34) 와 「옛시인의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 李賢燮씨 (36) 가 제1회 가톨릭가요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3일하오2시 明洞대성당사도회관에서 金壽煥추기경의 시상으로 거행된 銀트로피와 부상 (각50만원) 을 받았다.

가톨릭매스컴위원회 (총무·반예문神父)가 우리나라의 우수가요 발굴과 건전가요창달을 위해 제정한 「가톨릭가요대상」은 수상대상을 작사·작곡의 창작인에 국한시킨종노래 1곡을 선정, 작사·작곡자에게 시상, 창작의욕을고취시킨다는 것이 제정의 취지.

올해는 방송사 가요프로담당이 선정한 32곡을 대상으로 1·2차심사를 가졌는데 심사위원장 崔昌燮교수(西江大)는 『2차심사에서 「가나다라」와 「옛시인의 노래」가 동점을 얻어 작사·작곡부문으로 나누어 공동수상케 됐다』고 말했다.

시상식이 끝난뒤 金壽煥추기경은 『자칫 메마르기 쉬운 현대생활에서 가요는 정서를 살찌우는 윤활유 구실을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가톨릭가요대상이 창작인의 의욕을 북돋우고 우수가요발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나다라」「옛詩人의 노래」 32曲대상, 최종審査서 동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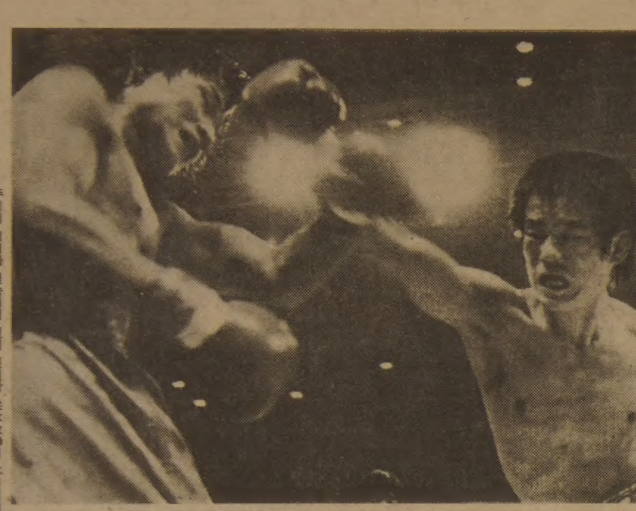
시상식에서 작사부문에는 宋昌植, 작곡부문에는 李賢燮씨가 나란히 수상, 聖발렌타인 축일을 상징하는 하트마크의 교단체유일의 가요상. 지난 1년간인기를 모은노래중 멜러디가 우수하고 듣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감을 주는

◇제1회 가톨릭가요대상을 수상, 기쁨을 감추지못하는 李賢燮씨㊧와 宋昌植씨㊨.

통합新人王 5명誕生

前·後期왕자 대결

孫五空·安益魯·梁承敦·金載源·柳炳善


◇턱에 強펀치 주니어 페더급 결승에서 전기 신인왕 梁承敦㊧이 후기챔피언 朴憲永의 턱에 강펀치를 날리고 있다. 梁이 판정승했다.

신인왕 5명이 탄생했다. 프로복싱 81년도 전국 신인왕전 전후기 통합 결승전이 13일하오 문화 체육관서 개막, 대회첫날 孫五空 (필승·주니어 플라이급) 安益魯(부산동아·주니어밴텀급) 梁承敦 (덕성·주니어 페더급) 金載源 (청우 주니어 라이트급) 柳炳善(승룡·주니어 웰터급)등이 각각 신인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날 주니어 플라이급 8회전 경기에서 후기 신인왕 孫五空은 전기챔피언 池末五 (원진)와 대결, 쉴 사이없이 훅을 주고 받는 타격전끝에 힘이좋은 孫이 5회 이후 리드를 잡아 판정승을 거두었다.

孫은 2회막판에 강한 라이트훅을 턱에맞고 비틀, 클린치으로 위기를 벗어났으며 4회접어들자 위력적인 어퍼커트 공격으로 게임의 주도권을잡고 계속 막판에 밀붙여 판정승 했다.

후기 대회 최우수선수였던 주니어 밴텀급의 安益魯는전기신인왕 裵孝鎭 (동조) 이 4kg이나 한계체중을 초과, 실격당하는바람에 경기를 갖지않고 우승했다.

주니어라이트급 전기신인왕 金載源 (청우) 은 후기신인왕 申明燮 (와룡) 의 기권으로 경기를갖지않고 자동적으로 신인왕이됐으나 申대신 출전한 李順哲 (대원) 과의 대결서 連打를맞고 2회38초 만에 KO패, 빛을잃은 신인왕이됐으며 일부관중들은『李에게 신인왕트로피를 주어야 한다』며 한때 소동을 벌이기도했다.

이번 신인왕 통합전에서는 일부 체급의 전후기 신인왕들이 부상, 체중초과등을 이유로 경기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 대회운영에 큰 혼란을 빚었다.

◇제1일전적

▲J·플라이급 孫五空 (필승) 판정 池末五 (원진)
▲J·밴텀급 安益魯 (부산동아) 계체량 실격 裵孝鎭 (동조)
▲J·페더급 梁承敦 (덕성) 판정 朴憲永 (동양)
▲J·라이트급 李順哲 (대원) 2회KO 金載源 (청우)
〈후기신인왕申明燮기권으로 金이통합신인왕으로확정〉
▲J·웰터급 柳炳善 (승룡) 판정 徐北洙 (덕성)

쿠바도 參加의사보내

韓·日 배구협, 대표팀定期戰 확대키로

韓日양국배구협회는 12일 韓日대표정기전을 확대, 쿠바를 포함시킨 3국정기전을 갖기로했다. 日本배구협회는 쿠바의 참가의사를 확인했다고 한국배구협회에 알려왔으며 금년 첫 3개국대회를 여자는 5월14일부터16일까지, 남자는 21일부터 23일까지각각 東京에서 NHK의주관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日本은 이제까지 비슷한시기에 韓—日, 쿠바—日本정기전을 따로 실시해왔다.

한국일보

海外토픽

「白鳥호수」는 實在

★中共文匯報江西省小潭주장

차이코프스키의 작품에 나오는 『백조의 호수』는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은 바로 중공江西省에 있는 小潭이라고 上海에서 발행되는 文匯報가 주장.

이신문은 최근 中共의 유학자들이 1개월반 동안 中共최대의 민물호수인 鄱陽湖부근 저습지를 답사, 파양호의 일부인 小潭에서 백조 백여마리와 기타 조류 2백여마리가 겨울을 지내고 있는것을 확인했다고 발표.

流星의 賊 〈309〉

李炳注 作　李友範 畵

虛實의 時間 ⑥

긴 여정(旅程)을 끝내고 통신사 일행이 부산포(釜山浦)에 귀착한 것은 선조24년, 서기(西紀)로 1591년 1월28일이다.

그런데 부산포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대기하고 있었다. 경상감사(慶尙監司) 김수(金睟)의 명을 받은 포졸(捕卒)이 서장관 허성과 그의 보좌관인 전판관(前判官) 성천지(成天祉)를 배에서 내리자마자 체포하여 끌고 갔다.

그 광경을 눈 앞에 본 홍계남은 아찔한 기분이었다. 그들의 죄상(罪狀)이 어떤 것이었든 수륙 수천리를 왕래한 노고를 겪은 사신을 저렇게 취급할 수 있을까 하는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했다.

하루 이틀쯤 객고(客苦)를 풀게해서 그런 연후에 추궁이 있어도 무방할 것이 아니었던가. 따라온 왜인들에 대한 체면도 있고, 부하들에 대한 위신도 있을 테니 말이다.

(이렇게 정이 말라있는 각박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싶으니 허성과 성천지의 일이 남의일 같지 않았다. 홍계남은 급하게 피로를 느꼈다. 무슨 까닭이냐고 물어볼 기력도 없었다.

객관으로 돌아가 홍계남은 심복 조인식을 시켜 사유를 알아보라고 했더니 결국 정여립사건(鄭汝立事件)과의 관련이라고 했다. 3년 전의 일이다. 그 일이 아직도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다 싶으니 계남의 가슴이 아팠다.

『허성과 성천지가 정여립의 집에 야장공(冶匠工)을 보내어 무기를 만들게했다는 겁니다』

조인식의 보고는 이러했는데 홍계남으로선 믿어지지 않았다. 허성은 온유한 인품과 학식이 높은 선비로서 매사에 신중한 성격이었다. 통신사에 임명되었을 때의 벼슬은 전적(典籍). 어찌 그런 사람이 정여립의 집에 야장공을 보내기까지 해서 무기를 만들게 했을까.

누군가의 무고(誣告)일것이 틀림없는데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까지 갔다 방금돌아온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할 수 있단 말인가.

허성과 성천지는 일단 동래부(東萊府)에 수금(囚禁)된바 되었는데 그 사실이 계남의 발을 무겁게 했다.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신으로서의 복명(復命)이 있은 연후에 추궁한들 늦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홍계남은 고향 안성에 잠시 들러 서울에 돌아갔을땐 허성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을수 있어 반가웠다.

허성은 허엽(許曄)의 아들이며 유희춘(柳希春)의 문인(門人)이다. 이 일이 있고 곧 정언(正言) 헌납(獻納) 이조좌랑(吏曹佐郞) 응교(應敎) 사인(舍人)을 거쳐 이조참의(吏曹參議) 부제학(副提學)을 역임하고 예조(禮曹) 병조(兵曹) 이조(吏曹)의 판서(判書)에 이르렀다. 동생 봉(篈), 균(筠), 누이동생 난설헌(蘭雪軒)과 더불어 당대에 그 문명이 자자한 문장가였으며 성리학의 대학자, 서도(書道)의 대가였다. 특히 그의 동생 균은 홍길동전(洪吉童傳)의 작자로서 이름이 높다.

(내가 허균의 홍길동전의 모델로서 혹시 홍계남의 생애가 일부 이용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 것은 허성의 사건에 깊이 동정한 일을 계기로 균과의 교의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였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36〉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㉓

일찌거니 잠자리에 든 수지는 머리맡의 갓스탠드만 켜고 어제 읽던 탐정소설을 펴놓았다.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인 주인공이 다시 최초의 살인의 목격자를 죽이고 또다시 두번째 살인의 증거를 쥔 사람을 죽이는 식으로 완전범죄를 위해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는 얘기였다.

살인이 거듭될수록 그 수법은 세련되고 죄의식은 희미해지고 생활은 우아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과정이 흥미진진했다.

오목이를 처음 놓아버린 일을 은폐하기 위해 앞으로 수없이 오목이를 모른다할 수 있을것 같았다. 주인공이 일곱번째로 살인을 하는 장면에서 그녀는 조금울었다. 일곱번째의 살인을 끝으로 그 살인자가 붙잡히게 돼있다는건 미리 알고있었다. 그렇다고 울 까닭은 없었다.

불을 끄고나서 잠을 청하면서 비로소 왜 울었던가를 알 것같았다.

오목이 때문이었다.

오목이를 처음 놓아버리곤 몸부림쳐 울었지만 두번째 놓아버리곤 그 정도밖에 울수가 없었다.

목이도 잠자리에서 울고있었다. 「영광학원」 중입반(中入班)의 상담실이 밤이면 목이의 침실이 됐다. 종로의 높직한 건물은 거의가 다 재수학원에서 차지하다시피한 사설학원의 전성기였다. 상담실은 정결하고 따뜻하고 침대로 쓰는 소파는 폭신했다. 생전 처음 가져보는 독방이요 사치였고 그녀가 오랫동안 꿈에 그리던 침실 그대로였다.

언젠가 유원장이 맹장염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다. 목이가 아이들과 함께 문병갔을때 환자는 특실에 누워있었다. 특실밖에 없어서 거기 든거였기 때문에 사모님은 이동실이나 삼등실이 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돈 걱정이 태산같았지만 목이 보기엔 그 특실은 참으로 좋았다. 구석구석 정결하고 밝고 아늑했다. 목이가 그때까지 보아온 사람 사는 거처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방이었다. 그런 방에서 하루라도 살아 보았으면… 그때부터 목이는 병원에 입원할수있는 병에 걸리길 얼마나 바랐던가. 병원 특실은 목이의 꿈의 침실이었다.

벽과 천장이 온통희고 천장이 까마득히 높은거며, 발이 길쭉하고 단조롭고 정결하며, 하다못해 서랍달린 작은 탁자위의 꽃병엔 항상 신선한꽃이 몇송이 꽂혀있는것까지 병원특실과 방불했다.

뿔뿔이 흩어진 「오누이의 집」 아이들도 더러 그곳을드나들었다. 종로 한복판이라 무엇보다 오다가다 들르기엔 교통이 그만이고, 그곳 전화통은 오목이의 담당이라 눈치보지않고 전화연락이 가능하기때문에 자연히 연락망의 중심지같이 돼가고있었다. 들르는 아이마다 목이의 처지를 부러워 했다. 「오누이의 집」에있던 아이들중에선 목이가 제일 잘된 걸로 소문이 나 있었다. 들러서 그걸 확인하려는 친구도 있었다.

『야아, 과연 너 출세했구나』

거의 시장 점포나 변두리 공장쪽으로 풀린 아이들이 모처럼의 휴일날 목이를 찾아와 그 출세를 확인하고는 기뻐해주기도하고 더러는 질투까지 했다. 목이의 침실만 남이 부러워할만한게 아니었다. 목이가 거기서 받는 대우도 소위 인간적이었다. 인간적이야말로 고아원친구들이 사회라는 거대한 괴물속에 꼭 있다고 믿고싶은 꿈이요 어떡하든 찾아내야할 보물이었다. 그것은 또 토정비결에 나오는 귀인처럼 소문만있고 실체는 없어서 누구도 아직 정말 만난적은 없는거였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당신도 알지, 여보… 생활이 너무들 들떠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미친듯이 허둥대는걸 모두 그만 둬야돼"　"그렇잖아?"　"지금은 대답할 수 없어요. 약속에 늦었어요"

조 규 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캐나다 외환은행
☎ : 364 : 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 1140
(KING × YORK)

LISBON AUTO COLLISION INC.
●토잉써비스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 8546
이영두. 이건학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 789—7352
대표 이인용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기 타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O' 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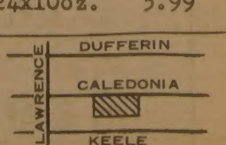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85—0647, 465—1722 송 관 현

— 한인기관및 단체명 —
●총 영 사 관 : 598—4608
●한 인 회 : 755—9288
●노 년 회 : 755—8079

DOMINION SMALLWARES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가 도미니온·스몰웨어에서 쎄일즈·슈퍼바이저로 일하게 되었읍니다. 언제든지 찾아 주시면(전화) 감사하겠읍니다.
김 형 철 배
Feb.22 - Mar.5 1982

Neilson choco chunks	5 lb.x15¢	9.99
Fleers soft dub bub deal pack 4x20x30¢+2.40	free	13.65
Cracher jack	36x40¢	9.99
Rowntree& Cadbury& Lowney's Reg. choco bar	36x40¢	9.99
Cadbury thick bar	36x55¢	13.75
Rowntree& Cadbury& Neilsons family size bar	24x99¢	15.09
Hershey almond choco bar Peanut bitter cup	36x40¢	9.29
Y & S Twizzlers	70x 5¢	1.85
Y & S Twizzlers	60x10¢	2.89
Life Savers candy	24x30¢	4.55
Breath savers	12x35¢	2.55
Breath savers	18x35¢	3.95
Hi - C pops	24x10oz.	5.99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 파트 타임 헬퍼구함.
서쪽지역. ☎ 769-5956

가게 매니저 구함.
☎449-1871 Mr. 권

유경험자 스토아 헬퍼구함 :
세파드×돈·밀스
☎ : 491-9701(6시이전), 292-8838(6시이후)

가게 캐쉬어 또는 헬퍼 구함
☎ : 651-3365

"경험있는 스토아 캐쉬어 구함 : 금, 토, 일 오후 4시~11시까지, 로렌스×더프린지역)
☎ : 239-7267 MRS. 신

레스토랑 남자 헬퍼구함 :
☎ : 486-1112
프랑소와 OR MR. 정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실 여자분 캐쉬어 구함(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
다운타운지역 ☎921-0624

접시 닦을 분과 주방일 도우실 분
한 국 관 ☎ : 536-0290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1220 DAVENPORT AVE.
☎ : 656-3020

청소, 수퍼 바이저 할분과 스프레이 버핑 하실분 구함.
☎962-0019

매주 일요일 FULL TIME 가게 헬퍼구함
킹스톤×빅토리아 파크
☎ : 699-9909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험있는 캐쉬어구함
제랄드×콕스웰
☎ : 465-6885 미스타 유

구 직

아기 정성껏 보아 드립니다.
346 WESTON RD. (ST. CLAIR)
☎ : 763-3289 장 영 동

입주해서 아기 성의껏 보아드리겠읍니다.
50세,
☎ : 438-7198

매매및 양도

①그로서리(주매상 $5,000)
②써브·마린+건물($135,000)
③갤러리(영×블루어)
☎ : 481-3443(B) 황 순 일
Canada Permanent Trust Realtor.

"꿀"팝니다(토종꿀과 로얄젤리)
30 DEWSON ST.(오싱톤×칼리지)
반드시 영어로 문의하실것 ☎ : 534-0563

이주관계로 "가와이"피아노 팔려고 합니다.
GOOD QUALITY
☎ : 425-0635

집안사정으로 급히 버라이어티가게 팝니다.
렌트 $570(월) 리스 5년 + 5년
주매상 $5,200 ☎298-7635(Mr. 정)

그로서리도 포함된 버라이어티 스토아, 아파트 많은 지역임. 주매상 : $4,500, 아스킹 : 42,000+스탁
렌트 : $650+하이드로(월)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주소 : 550 SHEPPARD AVE. W.

버라이어티 스토아(미니·마트)팝니다
〈5개월전 개업 : 개인사정으로 급히 가게처분 하기원함〉
상점넓이 : 2000sq. ft., 스토레지룸 : 1500sq. ft.
주매상 : $3,700, 핀볼머신 수입 $250(주)
렌트 : $570(월), 리스 : 5년+5년 옵션
권리금 : $20,000+스탁, 위치 : 런던·온타리오
☎ : 1-519-473-4654(MR. KIM)

가정형편상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크리스티 × St.Clair)
☎ : 656-5358

이윤높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4,000 관심있는분 직접 내방바람.
250 Sheppard Ave. W.

한글타자기 구합니다.
☎ : 364-2385 MR. 김

성능좋은 2 DOOR 워킹·쿨러 팝니다.
가격 500달러
☎ : 742-4811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던다스×더프린)
☎ : 536-3826 7 : 00PM까지
656-4686 7 : 00PM이후

WHITBY북쪽지역의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 : 1-655-3831, 또는 서신연락처
P. O. BOX 101 BROOKLIN ONT. LOB 1CO

아파트 안에(500여호)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6,500, 오후6시 이전 연락바람
☎ : 1-519-453-0420

하우스 렌트

가구달린 1 Bedroom 3개월간(3, 4, 5) 세놓음
DON MILL지역 월 $300
☎ : 225-2077

집세놓음(스카브로 동부지역) : 3 베드룸 방갈로, 차고 있음, 지하실 꾸며져 있으며 화장실2개, RENT $400 +하이드로(월), ☎ : 822-4480

미 용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렌미용실 377 ALBION RD.
☎ : 741-7829(김조자)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 497-0600, (R) 298-8558 김시섭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죄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 : 221-5441
미스타 이

PEOPLE'S
(상업용, 가정용 냉동기)
499-1203
미스타 원

시설및 수리

K C ENGINEERING INC
☎ : (416) 624-4319
COMPLETE BUILDING DESIGN
& PROJECT MANAGEMENT
건축설계, 공사감독
공사견적, K. C CHUNG P. ENG
STRUCTURAL ENGINEER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사 진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촬영
●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828
50 BLOOR ST. W. ☎ : 967-7121

식 품 점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 배달합니다.
●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자동차수리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번 달 원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824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8719(R) 이소피아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855, (R) 757-8666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84(여정룡)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이 경 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 T. W. SUIT, 206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CHUNG'S ACCOUNTING
● TAX RETURN, PLANNING
● 전 C. A. FIRM ACCOUNTANT
● R. I. A. SR. LEVEL
☎ : 661-1819 정 필 주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8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약 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 : 368-2746
조 남 오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순 봉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영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영수
2188 BLOOR ST. W.(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안내광고 11면에 계속됩니다.

2ND CLASS MAIL NO. 5248